Weekly 공감
2012.06.06 NO.162
gonggam.korea.kr

EXPO 2012 YEOSU KOREA 5.12~8.12

기획특집
아끼세요! 참으세요! 에너지가 잡힙니다 P25~47

9조원 규모 이라크 주택사업 수주 '제2 중동 붐' P8~9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는 그대들을 잊지 않습니다 P16~23

에너지 절약은 시민의 길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날이 더워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와 같은 정전사태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런 우려 속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정부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여름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모두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주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날이 더워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 소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겪었던 정전사태 기억을 떠올리며, 올 여름 또 다른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이가 많다.

현재 전력예비율은 10퍼센트 미만으로 갑작스럽게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 정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기 소비 행태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전기 절약에 힘쓰는 것이 우선일 듯하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전기소비량은 OECD 34개국 가운데 10위일 정도로 많다. 전력거래소의 최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전에는 10가구당 1대꼴이었던 에어컨이 지금은 10가구 중 6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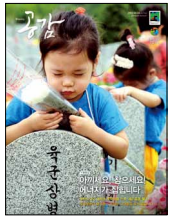
이처럼 늘어나는 전력소비량과 정전사태의 우려 속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5월 5일을 기점으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점은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이들은 전기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밥솥과 같은 전기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본은 지난해 여름 약 21퍼센트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 전력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해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확산, 전기요금 인상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평균 원가 보상률이 87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전'을 '내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본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 정책과 일본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부족한 전력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올 여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주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Contents

162호 2012.06.06 통권 263호

표지 이야기 |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하루 앞둔 5월 3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묘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기획특집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경제와 나라를 살립니다

6월 초인데 전력예비율이 10퍼센트 아래로 급락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피크 때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1백47만킬로와트로 불안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펑펑 썼다간 지난해 발생한 전력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 중에는 '절전'을 '남의 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89퍼센트가 '절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이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섭씨 26~28도)만 준수해도 7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25

16

호국보훈의 달

54

50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6.0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힘든 일 있을 땐 힘차게 다시 일어나려고요

161호 공감카툰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를 잘 봤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영업실적이 반 토막 난 사람이 "내일부터 잃어버린 반만큼 더 열심히 뛰려고!"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주저앉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죠. 그때마다 "내일 더 열심히 뛰자!"라고 생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땐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박병우 (53·회사원·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남을 돕는 즐거움 느끼며 살겠다고 다짐

160호 '김황식 총리, 아름다운 이웃 초청 격려'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눔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마음까지 훈훈해졌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며 20여 년 동안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해 온 배정철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남을 도우며 즐겁게 사는 것이라니 감동적이더라고요. 배정철씨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을 돕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원준 (21·학생·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최순덕씨 모습 통해 가족의 소중함 느껴

159호 가정의 달 중점기획을 잘 읽었습니다. 특히 치매 시어머니와 장애아들, 간암 남편을 30년간 보살핀 최순덕씨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미웠을 법도 한데 불평 한마디 없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게다가 아픈 남편과 아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순덕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박은주 (26·회사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학축제 나눔 문화 반가워

161호 세대공감 '젊은 피는 뜨겁다… 대학축제에 나눔 확산' 기사를 잘 봤습니다. 그동안 대학축제 하면 인기가수의 공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대학축제 문화가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대학축제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축제에 참여도 잘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 기사를 통해 대학축제가 나눔의 장이 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도 바뀌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나눔의 장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이진선 (24·학생·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독자 인터뷰

"4대강살리기 사업 이해하는데 도움… 맛집 정보 실어줬으면"

신성희 (요리사·37·성남시 분당구)

서울 중랑구에서 스파게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희씨는 〈위클리 공감〉을 매주 정기구독하고 있는 열혈독자다. "친구를 통해 〈위클리 공감〉을 접하게 됐다"는 신씨는 "생활정보 페이지나 서민정책 관련 페이지는 꼭 스크랩해 둔다"고 말했다.

지난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4대강살리기 사업 특집 기사는 그동안 4대강 관련 기사의 완결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우려했지만, 차츰 4대강의 준설효과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그럴까?'란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호 4대강 특집 기사를 통해 그런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해외 국가들의 반응이나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보면서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한다는 얘기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얘기일 테니까요.

다음 호에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낸 서민 인터뷰에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서민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시리즈로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제가 요리사이다 보니 잡지에 실린 맛집 기사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위클리 공감〉에는 맛집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4대강 맛집'이라든가, '전통시장 맛집'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찾아가보지 못해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유익한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알림

국립대전현충원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공모전

국립대전현충원이 나라사랑 등과 관련된 주제로 사진·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응모분야 | 사진, 웹툰
응모주제 | ① 사진 – 국립대전현충원의 나라사랑 및 경관이 담겨 있는 작품
② 웹툰 –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
접수기간 | 6월 11일 ~ 7월 13일
제출방법 | ① 사진 – 방문(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또는 우편 접수(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공모전담당자 앞)
② 웹툰 – 이메일(jskim915@korea.kr) 접수
문의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042-820-706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사례·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실천사례 부문은 음식점,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던 생생한 사례나 에피소드 등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내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자신만의 특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개인 또는 단체)
공모부문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아이디어
접수기간 | 6월 30일까지
응모방법 | ① 온라인 접수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홈페이지(www.zero-foodwaste.or.kr)에서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81-1 KT 가양지사 5층 한국폐기물협회 공모전 담당자 (우 : 157-730)
문의 | **공모전 담당자 ☎02-2680-7051**

159호 여수엑스포 퀴즈 정답 스카이타워
159호 여수엑스포 퀴즈 당첨자
박정주·전남 무안군 삼향읍 | 추청화·경북 예천군 예천읍 | 이삼자·대구시 북구 침산동 | 홍석현·경기 파주시 교하읍 | 정유범·충북 청주시 흥덕구

바로잡습니다

160호 30쪽 '엑스포의 꽃' 국제관 기사 큰 사진 설명 중 모나코관을 인도관으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2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 식량이나 금전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3. 학교엔 교훈, 학급엔 급훈, 가정엔?
4. 전기 등 에너지를 아껴 씀. "노후 원전의 잦은 고장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악재로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려 그 어느 때보다 OO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필요합니다."
5. 나라말.
6. 물건이나 작품의 좋고 나쁨을 평하는 모임.

세로

1. 공훈에 보답함. 6월은 호국OO의 달이죠.
2.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은?
3.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PC 등 제품. 모두 전기를 쓰는 것들이죠.
5.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 "5월 30일 개원한 제19대 OO에서는 정쟁을 삼가고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랍니다."
7.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

〈Weekly 공감〉 160호(5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미혼모 3 버릇 4 마늘장아찌 6 지동 8 해양
세로 1 미안마 2 모기장 3 버찌 5 아버지 7 동해

〈Weekly 공감〉 16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형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심은실·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조영란·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이영주·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김예지·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4대강 물관리기술’ 파라과이에도 수출

루고 대통령 한국 방문… 기술협력 MOU 체결 뒤 여주 강천보 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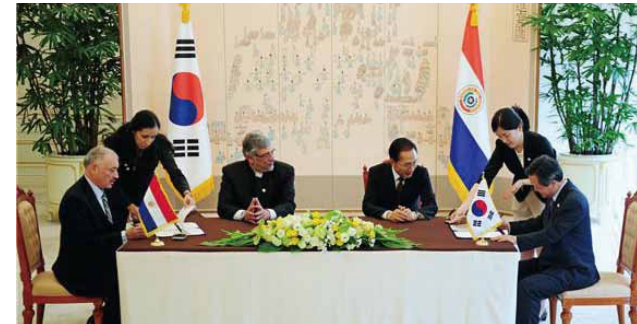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물관리 기술이 해외진출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 3월 모로코와 4대강 관련 물관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또다시 파라과이와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도 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와 4대강 관련 물관리 기술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월 29일 파라과이와 ‘강살리기 및 수자원 관리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모로코와의 MOU 체결 이후 두번째 4대강살리기 사업 MOU가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은 그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 왔던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파라과이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1천5백밀리미터로 비가 많이 오는 편이며,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물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다. 파라과이는 국토의 중앙을 흐르는 파라과이강, 남부를 지나는 파라나강 정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MOU에 앞서 파라과이 관광부장관 등 외교부 사절단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방한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면담하고 4대강 현장을 방문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날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27~29일 우리나라를 공식 실무방한한 루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를 체결했다. 루고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를 방문해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강문화관에서 현장을 둘러보았다.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5월 29일 한·파라과이 양국간 MOU 체결 이후 경기도 여주의 한강 강천보 한강문화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5월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강살리기 및 수자원 관리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뭄·홍수 빈번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4대강 준설로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보 설치로 인해 올해 건기에도 맑은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며 “오늘 맺은 MOU를 계기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고 대통령은 한강문화관에 설치된 ‘소통의 강’이란 이름의 테이블영상 앞에서 터치스크린 영상에 비친 물고기가 실물 영상인지 그래픽인지 물어보며 흥미롭게 지켜보았으며, 11층 전망대에서는 강천보의 수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현장을 둘러본 루고 대통령은 “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이 미래비전을 가진 중요한 사업임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기대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커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기술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축적된 수자원 관리 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해외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교민·기업에 관심 당부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루고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강화, 통상·투자,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관심사항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6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교민과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루고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조립 분야 협력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 확대, 개발경험과 수자원 관리기법 공유 및 우리 기업의 대 파라과이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했다.

루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여수세계박람회 ‘파라과이의 날 행사(5월 28일)’에 참석해 파라과이 전시관을 시찰하고 문화공연도 관람했다.

이번 방한은 루고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방한한 이후 두번째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박경아 기자

“여름철 4대강 캠핑예약 서두르세요”

방문객 5백만명 돌파… 주말마다 연속 매진 기록

4대강을 다녀간 인파가 5백만명을 넘어섰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을 다녀간 인파가 5월 28일 기준으로 누적인원 5백14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공식 개방 이후 지난 4월 26일 3백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번에 다시 5백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방문객 수는 1백70만명으로, 4월 방문객 1백42만명보다 28만명(19.7퍼센트)이 늘었다. 특히 5월 첫 주에는 지금까지의 주간 최고 실적인 82만명이 찾았다. 특히 어린이날이 낀 5월 첫 주말(토·일)에는 전국적으로 52만명이 4대강을 방문해 같은 주간 방문객의 63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4대강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부담 없는 방문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 시설별로 보면 전체 방문객의 절반 가량인 2백58만명이 보를 찾았다. 이어 수변생태공간 및 체육시설과 각종 행사는 1백76만명이, 자전거길은 49만명이, 캠핑장 등 기타시설은 31만명이 이용했다.

보별로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가 전체 보 중 가장 많은 57만명이 방문했고, 한강의 이포·여주·강천보 등 3개 보에도 70만명이 다녀갔다.

자전거길은 종주인증제 등 지원에 힘입어 4월 29만명에 이어 5월에도 20만명이 찾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5월에 개장한 영산강 승촌보, 금강의 인삼골, 백제보캠핑장 등을 비롯한 4대강 캠핑장은 주말이면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 여름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 중동 붐… "연 1백70조 시장을 잡아라"

서울서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39개국 65개 발주기관 참가

대한민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건국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약 80억 달러(9조원)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공관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같은 시각 서울에선 201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란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동국가들은 연간 발주 금액이 1천5백억 달러(1백70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바야흐로 제2의 중동 붐이 일고 있다.

10년간 지속된 고유가 행진으로 인해 재정 형편이 좋아진 곳. 넘쳐나는 돈을 쓸 곳이 없어 공항,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주력하기 시작한 곳. 석유화학, 제조, 정보통신산업에 관심이 많은 곳. 국민들의 복지 의식이 높아져 주택, 의료,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커진 곳. 발전설비 등 플랜트 사업, 기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도 큰 관심이 있는 곳.

총 2조5천억 달러(2천9백4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발주 금액이 1천5백억 달러(1백70조원)에 달하는 곳. 쉽게 말해 붙잡으면 대박이 나는 곳은 어딜까?

중동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년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lobal Project Plaza 2012)'는 제2차 중동 붐을 실감하게 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 39개국 65개 발주기관이 참가해 공항·항만·철도 등의 건설 인프라 시설과, 발전 등 전기 플랜트 설비, 기타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 총 1천5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백여 가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고유가로 돈 넘치자 대형공사 발주 늘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2백여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건설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관 프로젝트, 아시아 대양주 프로젝트, 대형 발주처 프로젝트, 중동지역 프로젝트,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이라이트는 중동관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등의 중동 국가는 ▲아부다비 수전력청이 발주하는 슈웨이하트(Shuweihat) 프로젝트 ▲카타르 마스라프 알 라얀 은행이 발주하는 카타르 프로젝트 ▲요르단 에너지 미네랄 자원부가 발주하는 에너지 프로그램 ▲이집트 PPP 센트럴 유닛이 발주하는 알렉산드리아 서부개발 프로젝트 ▲리비아 담수회사가 발주하는 트리폴리 담수 플랜트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동 지역 설명회는 별도의 설명회장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을 만큼 많은 인사가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KOTRA

지난 5월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년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 세계 39개국 65개 발주기관이 참여했다.

무함마드 알힐리 이라크 주택건설부 국장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내 건설 실적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한화가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내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다른 한국 업체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5월 30일(현지시각) 이라크에서 77억5천만 달러(9조1천4백50억원)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를 따냈다. 이로써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1965년 태국에서 현대건설이 첫 해외공사를 수주한 지 47년 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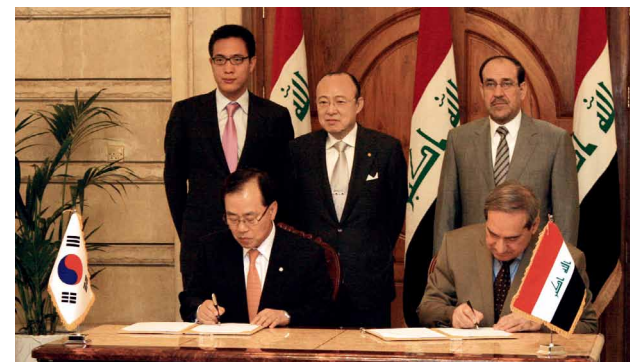
200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고유가 추세로 호황을 맞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산업화와 이에 따른 인구급증, 아랍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과정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전후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이라크에서는 서민주택 1백만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리비아에서는 간선철도 부설사업과 수도인 트리폴리를 새단장하는 트리폴리 메트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천억 달러 넘어서

2018년 월드컵 특수가 기대되고 있는 카타르는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를 설명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중동관에는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계 자금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이탈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계 펀드가 다수 초청됐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경력이 있는 사우디 개발펀드, 카타르의 마스라프 알라얀 은행, 사우디의 이슬람개발은행, 인도 인프라파이낸스공사 등 유력 아랍계 펀드들이 참가해 중동 및 제3국 프로젝트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는 이번이 5회째다. 이 설명회는 매년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해외에서 널리

조선DB

한화그룹이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공관에서 약 9조원 규모의 본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인정받고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 또한 높아 해외 대형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30일 폴란드 엔지니어링 건설업체인 PBG와 7백60메가와트 규모의 '폴란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부발전 컨소시엄은 도미니카의 PPE-EDS사와 20메가와트 규모의 유휴 발전설비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옮겨 건설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현지 수요 다원화… 진출 전략 차별화 필요

해외건설협회 최재덕 회장은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발주기관의 발주정보와 함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해외진출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코트라(KOTRA) 오영호 사장은 "건설 수요에만 치중하던 1차 중동 붐 때와는 달리 2차 붐에는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고 현지 수요도 다원화되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진출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특히 디지털 병원, 스마트 시티 등 신성장 분야로의 진출도 유망분야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행사로 발굴된 해외 프로젝트를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OIS)인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해외 발주처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가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플랜트·인프라 건설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 기업은 발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G

글·이범진 기자

5월 31일 서울 마포 강원도민회관에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대학생 서포터스 및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다. 나경원 조직위원장과 홍보대사 원더걸스 멤버 예은, 대학생 서포터스 및 블로그 기자단이 모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종목

경기종목(7개)	대회시설(장소)	세부종목(59개)
알파인 스키	용평스키장 (실버, 메가그린코스)	12개 종목 : 다운힐(3), 자이언트 슬랄롬(3), 슬랄롬(3), 10m 걷기, 글라드, 슈퍼 글라드
크로스 컨트리	알펜시아 스키장 (노르딕 센터)	12개 종목 : 직선경기(4), 주로경기(8)
스노 보드	알펜시아 스키장 (폭스트롯, 에코, 델타코스)	9개 종목 : 슈퍼자이언트슬람롬(3), 자이언트슬람롬(3), 슬람롬(3)
스노 슈잉	알펜시아 스키장 (바이애슬론 센터)	10개 종목 : 트랙경기(8), 주로경기(2)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빙상장	9개 종목 : 트랙경기(9)
피겨 스케이팅	강릉인라인스케이트장	5개 종목 : 싱글, 페어, 아이스댄싱, 통합페어, 통합아이스댄싱
플로어 하키	강릉생활체육센터, 관동대학교 체육관, 강릉영동대학 체육관	2개 종목 : 팀경기, 통합 팀경기
플로어볼(시범)	강릉영동대학	

※경기는 종목에 따라 평창과 강릉 두 곳에서 나눠서 진행된다.
플로어볼은 이번 대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종목이다.

내년 평창에서 '특별'한 올림픽이 열린다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페셜올림픽… 전경련 90억원 등 지원 잇따라

우리나라는 동계와 하계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FIFA월드컵 대회를 모두 유치했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스포츠 대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우리나라가 한 번도 열지 않은 대회가 있다. 바로 '스페셜올림픽'이다. 지난해 2월, 2013년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스페셜올림픽을 열게 됐다.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다. 동계와 하계로 나뉘어 대회가 치러지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는 동계 대회다.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평창에서 열린다. 일부 경기는 강릉에서 진행된다. 1백20여 개국에서 오는 3천3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노슈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플로어 하키 등 7개 종목의 59개 세부종목이다. 국제 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가 주최하고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GOC)가 주관한다.

스페셜올림픽은 미국의 케네디(Kennedy) 가문과 인연이 깊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Shriver) 여사가 1962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해 1일 캠프를 개최한 것이 스페셜올림픽의 시초다.

슈라이버 여사는 1일 캠프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스포츠 등 신체활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뛰어난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계기로 조셉 케네디 주니어(Joseph P. Kennedy) 재단은 스페셜올림픽 후원을 결정했다. 그 후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1회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열렸다.

스페셜올림픽의 관장기구인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는 현재 175개국 228개 회원 연맹이 소속되어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하는 대회는 아니지만 SOI가 IOC와 협약을 맺어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스페셜올림픽은 통상 동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Paralympics)보다 규모가 크고,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규모로 열린다.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처럼 동계와 하계대회가 2년마다 교대로 열린다.

내년 1월 29일~2월 5일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열려

역대 대회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열었다. 지난 2005년 일본 나가노에서 제8회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열렸고, 2007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제12회 하계 스페셜올림픽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스페셜올림픽의 인연은 오래됐다. 1978년 5월 우리나라의 성베드로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열린 하계 스페셜올림픽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 둘 다 장애인이 참가하는 대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대회는 다르다. 패럴림픽에는 뇌성마비, 척추장애, 소아마비, 시각장애 및 절단·기타 장애를 가진 장애인 선수가

홍보대사 원더걸스 예은

감동의 현장에 관중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원더걸스는 지난해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멤버 중 예은은 5월 31일에 열린 2013 스페셜올림픽 대학생 서포터스 및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평소 스페셜올림픽에 관심이 있었나요?

2011년에 아테네에서 스페셜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저희가 폐막식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였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즐겁기도 했고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인연을 맺어서 홍보대사까지 맡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짧게 소개한다면.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이지만 저는 '도전과 우정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힘겹게 한 발 한 발 디뎌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선수가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경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서 각오가 있다면.

제가 트위터 팔로워가 25만명이 넘어요. 2013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블로거 기자들이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도 팔로우를 해드릴게요. 저희 원더걸스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지는 못하지만 스페셜올림픽을 돕는 분들과 SNS를 통해서라도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난 5월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후원사 오찬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조직위원회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회원사로부터 모집한 경제계 후원금 90억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 나경원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진호 홍보대사, 김진호 홍보대사의 어머니.

참가한다.

스페셜올림픽에는 평균 지능지수(IQ) 69 이하인 지적발달장애인이 참가한다. 자폐증,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태아알코올증후군, 상체비만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는 장애인이다.

선수로 참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가 자격은 크게 세 가지다. 일단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적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이 제한도 있다. 만 6세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지만, 만 8세부터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연령 상한선은 없다. 훈련기간도 따진다. 적어도 8주 이상 훈련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의 표어다. 비장애인의 대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표어다.

경기 진행 방식도 여느 스포츠 대회와는 다르다. 경기는 장애에 따라 선수를 6등급으로 분류해 비슷한 등급별로 진행된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지적장애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기 때문이다. 시상식도 보통의 스포츠 경기와는 다르다.

모든 시상식에서 전통적인 금·은·동메달과 함께 4위부터 8위까지 전 선수들에게 등수에 맞춰 '리본'을 달아준다. '경쟁보다는 '도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대회이기 때문이다.

美 등선 코카콜라·피앤지 등 '거물'기업들 후원

'스페셜'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도 이런 취지와 연관이 있다. 스페셜올림픽 경기를 관람한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지적장애인들의 도전을 보며 '연대'와 '희망'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결국 이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여 세상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힘'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대회 주최 측은 설명했다.

스페셜올림픽의 철학이자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적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인류공동체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SOI가 밝히는 비전이다.

숭고한 비전 때문인지 스페셜올림픽은 외국,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취급받는다. 아직까지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스포츠 선수 미셸 콴, 코마네치 같은 유명인사들이 선뜻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기업의 후원도 마찬가지다. 스페셜올림픽의 글로벌 스폰서(Global Sponsor)는 코카콜라와 피앤지(P&G)다. 스포츠 후원 시장에서도 '거물' 축에 드는 기업들이다. 코카콜라는 1968년도부터 스페셜올림픽을 후원했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후원하는데 코카콜라가 거두는 노출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코카콜라는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을 활용한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다. 약 44만 달러를 광고비로 지출했는데 그 결과, 코카콜라는 1천1백만 달러 이상의 노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창 스페셜올림픽 대회에 우리 기업들도 전폭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지난 5월 29일 총리공관에서는 이번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김연아·원더걸스·김태원 등 홍보대사로 기여

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고 있는 전경련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런 지원은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많은 지적장애인이 편견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선진국을 만드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이번 대회를 위해 90억원을 내놓았다. 주요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이다.

전경련과는 별개로 하이원리조트(강원랜드), GKL, 우리금융, 신한카드, NH농협도 평창 스페셜올림픽을 후원한다. 하이원리조트는 20억원을 후원한다. 신한카드는 10억원 규모로 후원하는데 색다른 점은 '목도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손으로 손수 뜬 목도리를 3천3백 개 준비해 대회 개막식 날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에게 걸어주는 프로젝트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목도리 키트를 이용해 목도리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다.

유명인사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현재 스포츠 선수 김연아, 가수 원더걸스·김태원, 피아니스트 이루마, 비보이 팝핀현준,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G

글·하주희 기자

나경원 조직위원장
"경쟁 중에도 배려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나경원 위원장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나 위원장에게 대회를 준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스페셜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004년에 신문에서 스페셜올림픽이라는 걸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고 초청장도 안 받았는데 제가 무작정 태릉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페셜올림픽을 열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에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직접 관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회도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지도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 선수단의 차림새나 이런 게 정말 열악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바뀌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해 2월에 프레올림픽을 열었는데요, 이때 쇼트트랙 경기 중에 참가선수가 딱 2명인 경기가 열렸어요. 둘 중에 한 선수는 부모가 있어서 박수받으며 나가는데 부모님 없이 혼자 온 한 선수는 출발부터 삐끗거리더라고요. 박수받으며 나간 선수가 잘 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뒤에 처진 선수가 자기 근처까지 다 오니까 그제야 결승선에 발을 내딛는 걸 봤어요. 드라마 같은 모습이죠. 경쟁 중에도 배려가 있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나 과제가 있다면.

스페셜올림픽을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지적장애인 스스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하고, 둘째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적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셋째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스페셜올림픽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중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몽골 등의 국가를 이번 대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인권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곧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아무쪼록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수는 오동도 서쪽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동쪽으로는 한려 해상국립공원이 시작하는 천혜의 관광지다.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조성된 박람회장과 여수 신항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바다잔치를 세계의 축제로 꽃피우자

관람객들에게 그림 같은 풍광·맛깔진 향토음식 즐길 기회 넓혀줘야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여수는 지금 엑스포로 바쁘다. 주말에는 10만명 안팎의 입장객이 몰리고 있다. 여수역과 신항 터엔 지금 여든 개 전시관, 해상무대를 비롯한 공연장, 공원과 산책로가 빽빽하게 들어섰다.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바다와 가장 가까이 철로가 달리는 곳이 정동진이라고들 하지만, 모르는 얘기다. 전북 익산에서 호남선과 갈라진 전라선 열차가 헐떡이듯 덜커덩거리며 지리산 자락을 굽이돌아 내려온 남쪽 끝.

종착역을 앞두고 숨을 고르던 열차가 산모롱이를 돌자 갑자기 빠져들 듯 바다를 만난다. 그러곤 바다와 맞닿은 언덕을 따라 축대를 쌓아올린 철로로 달린다. 열차도 사람도 그야말로 바다 위를 붕 떠 가는 기분이다.

'밤에, 전라선을 타보지 않은 자하고는 / 인생을 논하지 말라'(안도현 '인생')는 전라선의 종착역이 여수다. 여수역은 항구 복판에 들어앉았다. 동백과 해장죽(竹)의 섬 오동도가 코앞이다.

'봄날에 서울에서 / 여수행 기차를 타면 / 여수역에 도착했는데도 기차가 멈추지 않고 / 그대로 바다를 향해 달린다 / 객실마다 승객들이 환하게 / 동백꽃으로 피어나 / 여수항을 지나 / 오동도를 지나 / 수평선 위로 신나게 달린다'(정호승 '봄기차')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여수역 플랫폼에 내리면 구름다리를 건너 개찰구로 나가곤 했다. 밤 기차 여행의 노곤함과 집에 왔다는 나른함이 겹치면서 묘한 안도가 밀려왔다. 그렇게 꿈결 같은 종착역을 안고 있는 항구가 여수 신항(新港)이다.

여수는 다도해·한려 해상공원의 기점

여수반도 서쪽, 비린내 물씬한 선창 '구항(舊港)'과 달리 화물항 신항에 서면 여수가 왜 아름다울 '麗(려)'에 물 '水(수)' 자를 쓰는지 실감난다. 방파제 겸해 오동도를 잇는 연륙교에 갇혀 잔잔한 바다가 쪽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곱다.

오동도 서쪽으론 1천7백 개 섬이 이루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동쪽으론 한려 해상국립공원이 시작하는 천혜의 관광지다. 이 미항(美港)에 여수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고 준비해온 꿈을 부려놓았다. 2012 세계해양박람회다.

여수역은 박람회장에 자리를 내주고 북쪽으로 옮겨 '여수엑스포역'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다. 이제 KTX를 타면 서울에서 박람회장 바로 곁 엑스포역까지 딱 세 시간이 걸린다. 어릴 적 여수에서 광주만 가려 해도 경전선 증기열차를 예닐곱 시간씩 타야 했던 시절이 까마득하다.

서울서 여수까지 5백킬로미터 가깝던 찻길도 이제 3백50킬로미터로 줄었다. 순천~완주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남쪽 끝 순천에서 곧바로 여수 박람회장까지 자동차고속도로가 연결됐다. 목포에서 순천까지는 남해안고속도로가 거침없이 내달린다.

광양과 여수산업단지를 바다 위로 곧장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도 놓이면서 두 도시가 80분에서 10분 거리로 좁혀지는 축지법이 벌어졌다. 이제 여수는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도시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5월의 여수엑스포는 때 이른 여름 날씨처럼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5월 12일 문을 열어 4만명을 맴돌던 입장객이 두번째 주말엔 6만명을, 석탄절 연휴엔 10만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80개 전시관 사이를 강물처럼 흘러다녔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도 곳곳에 펼쳐지는 거리 공연을 보며 지루함을 덜었다.

영호남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도시로 '우뚝'

디지털갤러리의 운동장만한 높이 27미터 천장엔 '살아 있는 바다'의 영상이 물결쳤다. 대우조선해양로봇관에선 크고 작은 로봇들이 깜찍하게 펼치는 갖가지 쇼에 어린이들이 넋을 빼앗겼다. 시멘트 저장고를 고쳐 만든 높이 67미터 파이프오르간이 은은한 연주를 사방 6킬로미터까지 들려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족관 아쿠아리움은 3백 종 3만 마리의 해양생물을 갖춰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여수의 랜드마크로 남게 된다.

토요일 밤 8시30분 여수엑스포 해상무대에서 가수 김장훈의 공연이 끝났지만 3만 관객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 시간 뒤에 시작하는 '빅오(Big O)쇼'를 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의 기다림이 조바심으로 바뀔 무렵 해상 분수가 1백미터까지 바닷물을 쏘아 올리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 뒤에 서 있는 지름 43미터 원형 타워 '디 오(The O)'가 물을 흘려 초대형 '물 스크린'을 만들었다. 거기에 레이저빔이 소녀와 바다의 신, 악령의 영상을 현란하게 그려댔다.

밤 10시 '물 쇼'가 끝나자 젊은이 수백 명이 해상무대로 모여들었다. 젊은이들은 DJ가 틀어주는 빠른 음악에 몸을 흔들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박람회장 남쪽 오동도 다리엔 사람들이 앉아 축제의 여운을 담았다. 박람회장 오색 불빛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를 들었다.

여수와 광양을 10분만에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여수엑스포는 1993년 대전 이후 처음 열린 국제 공인 박람회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바다다. 인류가 살아갈 터전이자 생명줄, 바다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곁 관심사로 끌어왔다. 보는 재미, 듣는 재미를 넘어 아는 재미를 더했다.

여수 시가지 한산…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온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바다의 의미를 일깨우는 자리로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다. 갇힌 교실에서 배우는 바다가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적시는 바다를 가르칠 기회다.

여수엑스포의 영광은 온전히 여수 사람들 몫이다. 개막 전날까지 다들 인구 30만 소도시의 교통난과 숙박난을 걱정했지만 여수 시가지는 오히려 한산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내를 거치지 않고 곧장 박람회장으로 들어오고, 차를 외곽에 두고 셔틀버스로 오가게 했기 때문이다. 엑스포 관람객이 여수의 그림 같은 풍광, 맛깔진 향토음식을 즐길 기회를 더 넓혀줘야 할 것 같다.

아쿠아리움, 한국관, 디지털갤러리, '빅오' 무대는 계속 남아 남해안 관광레저단지의 중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시설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한다. 여수엑스포엔 생명의 큰 꿈, 아기자기한 재미, 신나는 축제가 어우러진다. 이 바다잔치가 세계의 축제로 꽃피우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함께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글·오태진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

젊은 세대에게 나라사랑을 일깨우고 호국의지를 키워 주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나라사랑 실천교육이 실시된다. 나라사랑 실천교육 참여학교인 서울 인창고 '인창애국청소년단' 학생들이 5월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손병희 선생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영원히 기억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각종 행사 줄이어… 전후 세대의 호국·안보의식 높여

미래 세대의 가슴에 나라사랑을 꽃피우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의 나라사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한다.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유공자, 참전국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기여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탑공공원에서 열린 손병희 선생 순국 90주년 추모식에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학생 5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서울 인창고의 '인창애국청소년단' 학생이었다.

지난 2월부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인창고는 지난 4월 13일 탈북동포 강사를 초청해 학교 강당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특강 행사를 가진 후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90명 가량의 학생들로 인창애국청소년단을 결성했다. 전교생(약 9백70명)의 10퍼센트에 해당된다.

이들은 6월 6일 현충일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오전 9시~오후 5시 추모객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며, 6월 중에는 FC서울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데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7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 중구 의주로에서 경기도 파주시까지 통일로를 걸으며 '호국성지 도보순례 및 안보체험' 행사도 갖는다.

단체로 현충원 참배 등 나라사랑 교육

이들을 지도하는 서울 인창고 대외협력부 황금정 교사는 "외교관 출신 탈북동포 강사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듣고 난 후 자발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아 일부를 탈락시킬 정도였다"며 "학교 내 말썽쟁이였던 한 학생은 애국청년단 활동을 하며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져 행동까지 달라졌다"고 전했다.

서울 인창고 원승호 교장은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나라사랑 실천교육은 청소년기의 국가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사랑 실천교육은 국가보훈처가 2009년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계기로 미래 세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나라사랑 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전국 5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함양해 나라사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안보여건을 고려해 호국의지를 다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내는 행사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립서울현충원과 전국의 충혼탑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경제·문화예술·종교, 체육계 등 각계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기게양·묵념 등 추모행사는 전 국민 참여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참여 행사로 감사와 함께 안보의지 다져

제62주년 6·25행사는 '값진 희생의 역사,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거행된다. 중앙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5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국내 및 유엔참전용사, 일반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제10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9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유족 및 부상자, 선·후배 장병, 학생,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이와 별도로 전사자 출신학교에서도 자체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 밖의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로 ▲하늘로 부치는 엽서 쓰기 ▲국립묘지 한 송이 헌화 운동 등을 전개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감사 드리는 사업으로 ▲나라사랑 음악회 ▲감사편지 보내기 등이 준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음 전쟁기념관과 서울광장을 잇는 '호국퍼레이드 및 나라사랑 콘서트' '제1회 6·25상기 안보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전후 세대에게는 6·25전쟁과 그 이후의 도발을 상기시키고, 6·25전쟁과 그 이후 희생·헌신한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남북한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6월 8~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4백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연합사 및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기념식 및 부대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오전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및 전국 충혼탑 등 동시 개최	국가보훈처 및 자치단체	정각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
제62주년 6·25행사	6월 25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국가보훈처	참전국 국기 및 한국군 부대기 입장, 참전 영웅 롤콜 등 행사
제10주년 제2연평해전기념식	6월 29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국가보훈처	기념식, 전사자명명 고속함 견학
대학생 한미연합사 및 JSA 특별견학	6월 8~26일 한미연합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국가보훈처 한미연합사	1회 80명, 총 5회 실시
유엔 참전비 순례	6월 20~30일 유엔 참전기념비 (16개 중 선정)	전몰군경 미망인회	단체임직원 등 참석
호국퍼레이드 및 나라사랑콘서트	6월 23일 전쟁기념관 ~서울광장	국가보훈처	퍼레이드, 콘서트
제1회 6·25상기 안보마라톤 대회	6월 24일 월드컵공원	특전사전우회	마라톤, 사진전 등
참전유공자위로연	6월 2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국내외 참전용사 위로연
휴전선 전적지답사	6월 25일~7월 5일 DMZ 등	재향군인회	국내외 대학생 140명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7월 8~14일 DMZ 등	국가보훈처	참전 16개국 155명
6·25참전 60주년계기 학술회의	7월 23일 프레스센터	한국국방 안보포럼	유엔 참전국의 의미와 역할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7월 27~28일 임진각~고성통일전망대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등 500명 참석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행사들로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6월 23~28일) ▲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7월 8~14일) ▲6·25참전 60주년 계기 학술회의(7월 23일) 등이 개최된다.

전후 세대 대학생들 JSA 특별견학도

미국 등 9개국 현지에서도 유엔군 참전용사 감사·위로 행사를 거행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한국전참전 기념행사(7월 27일 알링턴)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사랑 캠페인도 펼쳐진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야구선수와 연예사병이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운동에 동참한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국가보훈처 www.mpva.go.kr ☎1577-0606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 62년 만에 귀환

"후배 손으로 찾아드리지 못해 부끄럽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지난 5월 25일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미국을 거쳐 62년 만에 귀향하는 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박신한(55) 단장(대령)과 김종성(49) 중령, 이도환(42) 소령, 전철규(42)·권재우(40) 상사 등 5명의 1년 가까운 숨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 선배님 유해를 감싸고 있던 유엔기를 태극기로 바꿔 다시 싸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북한 땅에 묻혀 계신 선배님들을 후배인 우리 손으로 찾아드리지도 못했고, 미국에 10년 넘게 계셨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감식단 본부에서 만난 이들은 일요일인데도 봉환(奉還)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북한에 묻혀 있던 유해 12구를 발굴한 것은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였다. JPAC은 1996~2005년 북한 지역에서 미군 전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2백26구의 유해를 발굴해 하와이에 있는 JPAC본부로 가지고 갔다. JPAC은 DNA 감식 결과 이 중 12구가 아시아계인 것을 확인했다. 2000~2004년 장진호 전투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였다. JPAC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유해발굴감식단에 통보했다. 한·미는 당시 장진호 전투에 투입된 미군 부대에는 아시아계 미군 병사가 거의 없었고, 유해가 발굴된 곳이 미군 전사자만 추려내 매장한 장소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당시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KATUSA)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전사자 예우 차원 수송기 보내 직접 모셔와

박신한 단장은 "지난해 11월 12구의 유해가 국군 전사자가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국군 유해를 가져가려고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냐'면서 트집을 잡아 유엔군 전사자 발굴까지 막을까 봐서"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에서 북한에서 발굴한 카투사 출신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를 한국에서 준비해 간 오동나무관에 옮기고 있다. 벽 뒷면에 KPAC 슬로건인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란 문구가 보인다.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감식단은 JPAC본부에 보관 중인 12구의 유해에서 각각 손톱 두 마디만큼의 뼛조각을 떼어와 한국에 보관 중인 1만9천여 개의 유가족 DNA와 대조 작업을 벌였다. 처음엔 6구의 유해가 유가족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고(故) 김용수 일병만 신원이 확인됐다. 고 이갑수 일병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근거로 병역 기록을 역추적해 가족을 찾은 뒤 DNA 비교로 신원을 밝혀냈다.

우리 정부는 국군 전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송기를 보내 유해 12구를 직접 모셔오기로 했다. 지난 5월 18일 박 단장 등 5명이 유해 봉환을 위해 특별수송기를 타고 하와이로 떠났다.

美 JPAC본부에서 우리 전통방식으로 입관

이들은 JPAC본부에서 유해 12구에 대해 우리 전통 방식으로 입관 작업을 했다. 지퍼백에 담겨 있던 유해 하나하나를 한지로 싸서 옻칠한 오동나무관에 넣었다. 뼛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처음 감식했을 때 찍은 사진과 일일이 비교 작업을 했다. 입관하는 데만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별수송기는 하와이를 출발해 급유와 비행 정비 등을 위해 마셜 제도에 있는 콰잘린 섬과 괌을 경유했다. 이들은 괌 미군기지에서 관을 덮고 있던 유엔기를 태극기로 바꿨다. 이도환 소령은 "미국은 국군 전사자가 유엔군으로 참전했다는 의미로 유엔기로 관을 감쌌다"면서 "선배님들을 마땅히 태극기로 예우해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전철규·권재우 상사는 하와이에서 성남 서울공항에 올 때까지 49시간 동안 12구의 유해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한다. 특별수송기가 26시간 동안 괌 공군기지 격납고에 머물 때 미군 2명이 경계 근무를 위해 배치됐지만, 두 상사는 유해 곁에서 컵라면을 먹고 간이침대에서 자며 자리를 지켰다.

박 단장은 봉환행사 준비를 위해 하루 먼저 귀국했고, 나머지 4명은 유해 12구와 함께 2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4명은 특별수송기 한쪽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조포 21발이 발사되는 장면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김종성 중령은 "6·25전사자 봉영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이 이제야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다"고 했다.

박 단장은 "유해 한 구씩 지프로 옮겨 싣고 공항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는데 운전자들이 '북한지역 발굴 국군전사자 유해 국내 봉환'이라고 써 있는 문구를 보고 길을 비켜줘서 고맙고 감사했다"고 했다.

조선DB

유해발굴감식단 박신한 단장(대령)과 김종성 중령, 권재우 상사, 이도환 소령, 전철규 상사(오른쪽부터).

신원이 확인된 고 김용수 일병과 고 이갑수 일병의 유해는 이달 중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나머지 10구의 유해도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유족들 유전자 시료 채취해야 신원확인"

김 중령은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 6천4백여 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79명에 불과하다"며 "국군 전사자 유가족이 DNA 시료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소령은 "특히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전사자의 유족이 아예 포기를 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대비해 검사에 응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박 단장은 "시군구 보건소나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을 통해 간단하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사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부대 구호는 다음과 같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G

글·전현석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일러스트 · 유현호

3代 남자 10명 모두 현역 복무한 권성기씨 일가

군대 얘기로 소통… "가족 우애 돈독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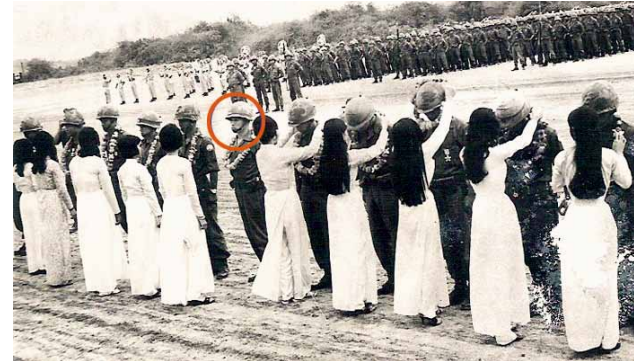
3대에 걸쳐 남자 10명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가문이 있다. 경기 안양에 사는 권성기(80)씨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고등학생의 몸으로 전선에 뛰어들었다. 권씨의 세 아들과 손자 등 9명도 모두 육·해·공군에서 현역과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은 명절 모임 등이 있을 때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군대가 가족, 형제 간의 우애도 더 돈독하게 해준 것이다.

"평범한 가문일 뿐인데 주목을 받게 되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아들부잣집' 권씨 가문의 좌장 권성기(80)씨의 말이다. 권씨는 슬하에 3형제를 뒀다. 권씨의 3형제는 각각 아들을 두명씩 낳았다. 아들 셋과 손자 여섯을 둔 권씨 집안은 3대에 걸친 남자 10명(권씨 포함)이 모두 육·해·공군에서 현역과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병역기피가 만연한 요즘 보기 드문 '병역 명가'인 것이다.

권성기씨는 육군 작전장교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가했다. 그의 첫째 아들 권순도씨는 포병 제101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며, 둘째 아들 권순화씨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화학지원대에서 제독병 및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막내아들 권순영씨는 중화기중대에서 기관총 사수로 군복무를 마쳤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이 가장 아쉬워"

큰손자 준일씨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했으며, 둘째 손자 준호씨는 52향토사단에서 복무했다. 셋째 손자 준학씨는 공군 특기병, 넷째 손자 준영씨는 9사단 29연대 수색대에서 근무했다. 다섯째 준열씨는 공군헌병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경호했다. 여섯째 손자 권준성씨는 해군작전사령부 비로봉함 소속 조타병으로 근무했다.

1967년 2월 26일 백마1호작전 전공자 무공훈장 수여식 장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권성기씨다.

권성기씨는 6·25전쟁을 직접 겪은 전쟁세대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는 "북한과의 전투는 정말 치열했다"고 회상했다.

권씨는 5월 31일 통화에서 "특히 1953년 7월 휴전을 앞두고 있었던 '7·13전투'가 유달리 그랬다"며 "수많은 전우가 제 앞에서 쓰러져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전우를 이름 없는 고지와 산골짜기에 묻어가며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통일의 염망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이 가장 아쉽다"고 덧붙였다.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권성기씨는 직업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1953년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해 포병소위로 임관된 그는 이후 줄곧 전방사단과 군단, 야전군의 작전 분야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1966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지원해 백마부대 1진 선발대 요원으로 18개월 동안 전투에 참가했다.

큰손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그는 백마1호 작전에서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적진 중앙에 야포를 공수, 고지 정상에 포를 거치해 기선을 잡았다. 고지를 선점한 뒤 계곡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보병부대를 지원한 것이 그였다. 권씨는 이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권성기씨는 1978년 전역한 뒤 1988년 88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큰손자 준일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군대에서 겪었던 일화를 들으면서 자랐다"며 "집안 어른들 모두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는 군대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준일씨에게 할아버지는 '롤 모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엄한 할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남자답고 당당한 할아버지를 본받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자 권씨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군대에 지원 입대해 최전방 GOP에서 현역으로 근무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그랬던 준일씨에게도 군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입대 전까지는 그저 자유로운 학생이었던 그로서는 규칙적인 생활패턴과 엄격한 생활규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대학교 입학 후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무반 생활이 어색했습니다. 선임들과의 관계와 생활패턴 등 모든 것이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군생활에 차츰 적응하게 되자 부대생활은 그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했다. 그는 군생활을 통해 나약하고 나태했던 심신을 다듬어갔고, 선후임 간의 신의도 돈독히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최전방인 강원도 고성군에서의 근무 경험은 국가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함께 끈끈한 전우애도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 했다.

"명절 아니어도 할아버지 댁에 자주 모여"

"군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개월간의 GOP 생활입니다.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 특성상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한여름의 땡볕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선임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후임이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무사히 경계근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권성기씨 가문은 명절 모임 등이 있을 때면 군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권준일씨는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서 가족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라며 "할아버지 댁에서 3대가 모두 모일 때면 군대 이야기는 빠뜨릴 수 없는 단골 소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손자 준일씨는 "명절이나 할아버지 생신같이 특별한 날이 아닌 때에도 종종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다"며 "군대가 가족, 형제 간의 우애도 더욱 돈독하게 해줬다"며 웃었다. 권씨 집안은 국방부로부터 '2012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G

글 · 이범진 기자, 박은지 인턴기자

지난해 6월 2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6·25 전몰장병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화·헌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차와 꽃을 들고 묘비로 향하고 있다.

노병의 마음은 아직도 현역이다. 구순이 넘은 백선엽 예비역 장군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일반 시민과 장병 1백여명을 대상으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내가 겪은 6·25' 강연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5월 23일 오후 판문점을 찾은 해외 6·25 참전 군인들.

"젊은 세대가 호국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기고… "다양한 행사 청소년 참여 유도"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 온 국민의 호국 의지를 다질 수 있게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호국의 달 행사를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참전국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6월은 고귀한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받들고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 주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 내겠다는 호국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된다. 지금은 단순히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구호를 넘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안보실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전례 없는 기적의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뜨거운 교육열,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성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좁은 국토와 적은 지하자원, 분단된 국토라는 약점을 생각해 보면 외국 자본의 투자 없이 우리의 자본만 가지고는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한 한미동맹이 있었다.

안보 실상의 바른 인식과 대처 중요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외국자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 군사력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증원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최소한의 국방비만을 사용하고 여유분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 복무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젊은이들은 최소한의 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반미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안보현실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진정한 '호국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현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안보실상을 바르게 알리고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 지난 50년간의 국가유공자 보상 중심의 '사후적 보훈'에서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선제적 보훈'으로 보훈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사랑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호국'에 초점을 맞추어 온 국민이 호국의 지를 다지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두려고 한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전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키로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해 과거만 바라보는 행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참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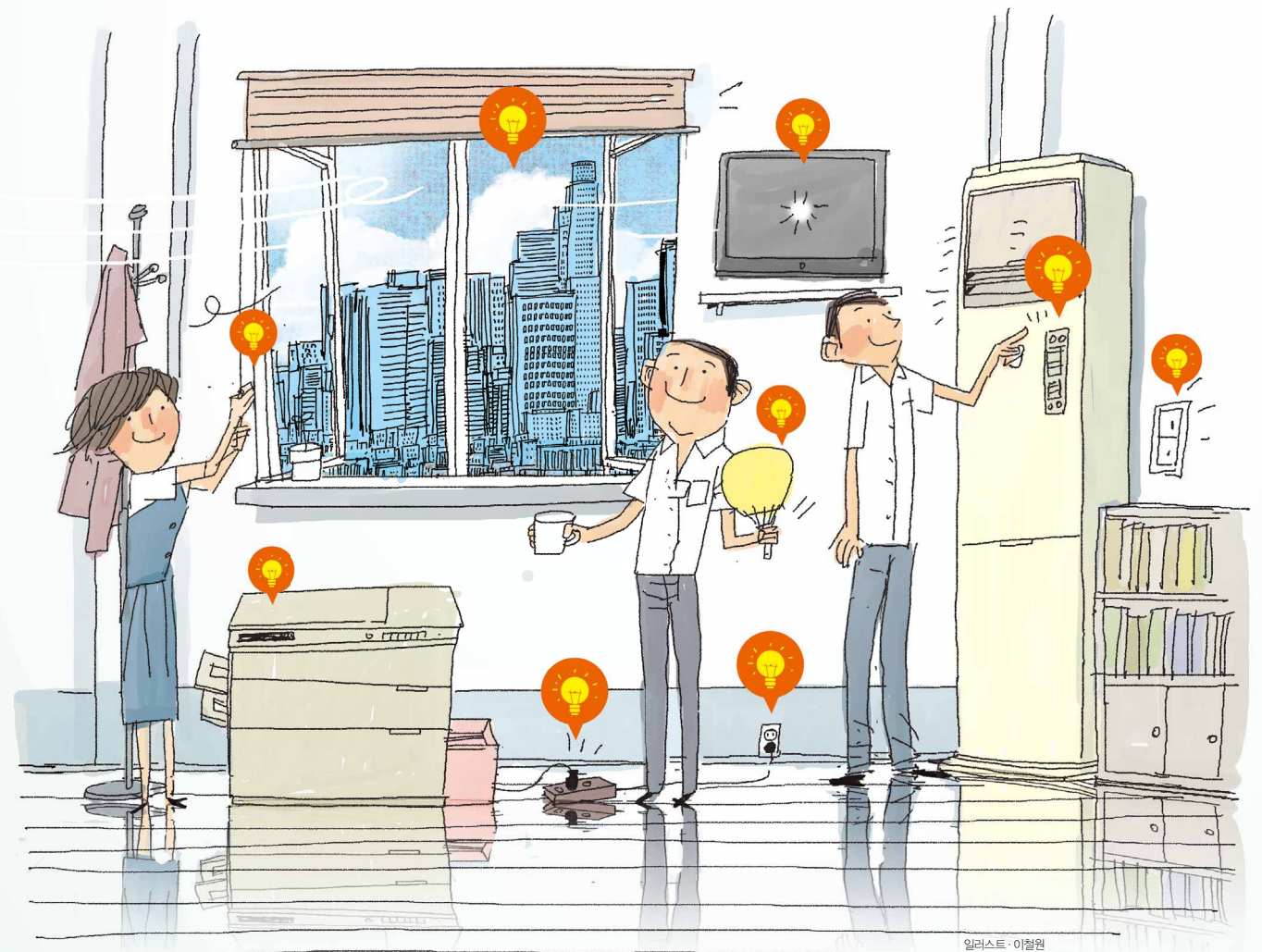
이러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호국보훈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G

글·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기획특집

쿨맵시로 시원한 여름을 에너지 절약은 생존이다

6월 초인데 전력예비율이 10퍼센트 아래로 급락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피크 때 예상되는 예비전력은 1백47만킬로와트로 불안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펑펑 썼다간 지난해 발생한 전력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 중에는 '절전'을 '남의 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89퍼센트가 '절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이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섭씨 26~28도)만 준수해도 7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일러스트 · 이철원

여름철 전력 비상… “온 국민이 함께 극복을”

이른 무더위 · 대형발전소 잦은 고장 등 악재 겹쳐 위기 고조

기후변화로 오뉴월 더위가 한여름 못지않다. 대형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 등의 악재까지 겹쳐 올 여름 전력수급 전망이 어둡다. 지난해와 같은 '전력대란'이 재현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민간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5월 내내 전국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됐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날씨에 전력수요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도 전에 예비전력이 2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4백80만킬로와트 증가한 7천7백7만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공급능력이 7천8백54만킬로와트인 것을 감안하면 올 여름 예비전력은 휴가가 집중된 8월 초를 제외하고 대부분 4백만킬로와트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는 TV나 인터넷, 민방위 비상경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긴급절전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 모든 경제주체가 동참하는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 평년보다 빠른 6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산업체 휴가 분산 · 자가발전기 가동 등 협조

여름철 전력피크 사용량의 절반 이상은 산업체가 차지한다. 또한 전체 사용량의 21퍼센트는 냉방수요다. 부문별 피크 점유율은 ▲산업체 54.3퍼센트 ▲일반건물 27.2퍼센트 ▲주택 11.6퍼센트 ▲기타 6.9퍼센트 순이고, 냉방수요 점유율은 ▲상업 65퍼센트 ▲산업체 26퍼센트 ▲가정 9퍼센트 순이다.

이는 4백만킬로와트 이상의 예비전력을 유지하려면 산업체와 상업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휴가기간 분산, 조업시간 조정, 자가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절전대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력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여름 한 시민단체가 서울 명동 거리에서 냉방온도를 준수해 전력난도 해소하고 건강도 지키자는 내용의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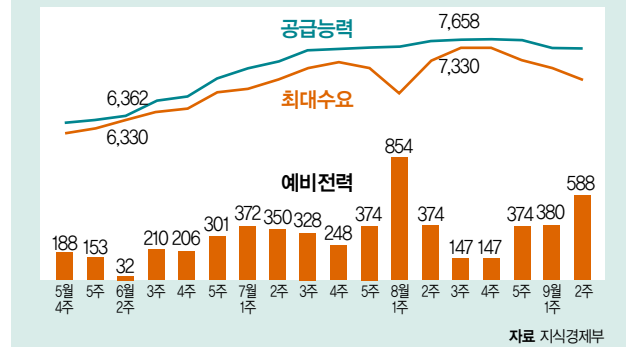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노재킷 노타이'의 쿨맵시 차림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휴가 분산은 8월 초에 집중된 휴가를 8월 중순 이후로 분산시켜 예비전력이 부족한 8월 말의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철강 기업과 주물, 시멘트 업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업시간 조정은 산업체가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실시할 경우 전력 절감량에 비례해 인센티브(1천20원/시간당 킬로와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역시 철강, 시멘트, 제지, 금속, 섬유 등 대부분의 업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냉방수요 21퍼센트… 국민들 적극 협조 필요

조업 특성상 휴가를 분산하거나 조업 조정이 어려운 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피크시간대에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체 중 가장 큰 자가발전기(33만킬로와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산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확보되는 예비전력은 4백만킬로와트(휴가·조업조정 3백만, 자가발전기 1백만) 수준이다. 이는 원자력 4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에 적극 동참하여 절전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올 여름 예비전력은 5백만킬로와트 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 같은 '전력대란' 예방대책에 산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31일 석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백화점 등 23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하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산업계 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다. 냉방수요가 하절기 전력피크의 21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시 이렇게 하세요

- 전기 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한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을 일시 중지한다.
- 재난상황 파악용 TV, 라디오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한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끈다.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정부는 백화점, 호텔 등 4백78개소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고, 그 밖의 대중 이용시설(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매장, 의류 등의 소매업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자율절전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절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냉방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절전사이트와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옷 입기 운동인 '쿨맵시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과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 등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가정·학교·의료기관·숙박업·상점·음식점·사회복지시설·제조업·사무실 등) 특성에 맞는 절약 실천방법을 매뉴얼로 보급하고 있고,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과 절전 행동수칙을 알리는 전력수급 시계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G

글 · 서철인 기자

문의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 에너지절전 www.powersave.or.kr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국내 전기요금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

전기 과소비 유발… 환경파괴 등 국가경제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기형적인 요금체계가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전력 과소비, 한국전력의 부실화, 미래 녹색성장 저해,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만과 일본이 최근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대만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공업용 35퍼센트, 상업용 30퍼센트, 주택용 16.9퍼센트였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대만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본도 지난 4월 전기요금을 크게 올렸다. 인상률은 17퍼센트였다. 가격 정책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성공했다. 전기 사용량이 21퍼센트나 줄어 목표인 15퍼센트 절전을 크게 웃돌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작전이 주효한 셈이다.

대만과 일본의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의 87.4퍼센트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원유 가격은 5배 가까이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16퍼센트 올랐을 뿐이다. 산업용의 경우 2003~2010년 사이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2~3배 올리는 동안 우리는 고작 14퍼센트 인상했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가장 싸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0.083달러로 가장 비싼 독일의 0.325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0.058달러로 0.169달러인 슬로바키아의 3분 1 정도에 그친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8조원에 이른다.

대만 · 일본, 최근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7년 21조6천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로 인한 이자만 하루 60억원에 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추가하는 악순환 구조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물가안정과 기업지원을 위함이다. 문제는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농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산업용 전력 부문으로 1조6천1백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 가운데 76퍼센트에 해당하는 1조2천3백억원이 대기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농업용의 경우 5천억원의 손실액 가운데 40퍼센트인 2천억원이 대규모 기업농에서 생겼다. 적자기업인 한전이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적자구조는 해외진출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연속 적자와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적자를 만회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OECD 국가 전기요금 비교 (단위 : kWh/달러, 2010년 기준)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OECD 평균
주거부문	0.083	0.116	0.165	0.199	0.232	0.157
산업부문	0.058	0.068	0.106	0.121	0.154	0.110

자료 OECD/IEA

우리나라 품목별 요금 인상 비교

- 142~214배 자장면 20~30원(1963년) ➡ 4,273원(2011년)
- 192배 대학수업료(인문계) 3만3,000원(1970년) ➡ 633만8,000원(2011년)
- 125배 시내버스(현금) 8원(1965년) ➡ 1,000원(2011년)
- 67배 쌀(80kg 기준) 3,010원(1963년) ➡ 20만3,020원(2011년)
- 27배 전기요금(원/kWh) 3.25원(1963년) ➡ 90.3원(2011년)

GDP 대비 전력소비량 (단위 : kWh/달러, 2010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0.58	0.35	0.20

자료 한국전력

우리나라 전력 용도별 적자 규모 (괄호 안은 원가회수율)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원가회수율	(88.3%)	(92.6%)	(86.0%)	(87.5%)	(34.6%)	(73.2%)
점유율(단위 : %)	23%	13%	2%	46%	14%	2%
적자액(단위 : 억원)	8,000	4,800	600	16,100	5,000	6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증가율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
전력소비증가율	6.3	6.5	5.2	5.7	4.5	2.4	10.1	4.8
경제성장률	4.6	4.0	5.2	5.1	2.3	0.2	6.1	3.6

집에서 에너지 절약!

냉장고 온도를 1도만 높여주세요

냉장고 온도를 1도 올리면 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은 섭씨 영하 15도~영하 18도, 냉장실은 3~4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 문을 6초간 열어두면, 이때 올라간 냉장고 온도를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소요됩니다.

진공청소기 먼지 필터부터 '싹싹'

진공청소기는 가전기기 중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기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엔, 먼저 필터와 먼지통을 청소해 주세요. 먼지 흡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찬물로 해주세요

세탁물의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해집니다. 찬물로 세탁을 해도 세탁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급적 찬물로 세탁을 해주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낮은 온도의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노하우입니다.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림질하면, 연간 사용시간을 2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소비전력이 큰 세탁기를 자주 돌리면 전력 낭비가 심해집니다. 한번에 많은 세탁물을 모아서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낮시간을 피해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력피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전기요금이 싼 탓에 전기를 과소비하는 풍토가 생겨 특히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이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은 국가경제적으로도 적잖은 골칫거리다. 무엇보다 전기를 과소비하는 풍토가 문제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2000~2010년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4.1퍼센트에 그친 반면 전력소비량은 평균 5.3퍼센트 늘었다.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았다.

경유나 가스 쓰다가 가격 싼 전기로 대체도

경유나 가스 등 기존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대체하는 추세도 전력소비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유를 사용하던 공장 시설을 전기로 바꾸고 비닐하우스의 난방을 기름난로에서 전기스토브로 대체하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금을 절약해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크다.

1차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전기로 전환하면 약 60퍼센트의 손실이 발생한다. 가령 1천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진 기름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는 38퍼센트인 3백80킬로칼로리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매년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생수로 빨래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전세계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체 전력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이미 20퍼센트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1.3퍼센트에 그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는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 8위 수준이다. 1990~2009년 동안 OECD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퍼센트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1백25퍼센트나 증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과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최근 대대적인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비용절감 등을 통해 1조1천억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전의 자구노력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두 3조5천억원의 원가절감을 통해 매년 2.5퍼센트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왔다. 하지만 자구노력을 통한 전기요금 안정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한전의 정상화는 어렵다는 평가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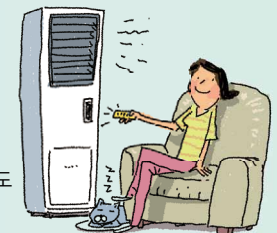
글 · 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쿨한 당신! 영업장과 사무실에서

문열고 에어컨 켜면 과태료 물어요!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서, 문을 열어 놓아서야…. 정부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비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 확정됩니다.

권장 냉방 온도를 지켜주세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섭씨 26~28도입니다. 적정온도를 준수하면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방온도를 1도 조절할 경우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기기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빼세요

휴대폰, 태블릿PC,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다 충전되면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세요. 전력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흡혈귀, 대기전력을 잡아라

컴퓨터, TV 등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이 같은 대기전력은 '전기 흡혈귀'라고 불릴 만큼 소모하는 전기량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세요.

재킷은 벗어던지고, 타이도 훌훌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철 노재킷 근무를 권하고 있습니다. 노타이 근무에 이어지는 파격적인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체감온도를 2도 이상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경영…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에코드라이빙·폐열 재활용 등 기업 특성에 맞게 에너지 절감 나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전기 소비량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에는 산업시설의 소비량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기업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에너지 소비 절감에 앞장서는 기업을 소개한다.

한국철도공사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로 사업장별 경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예 사규에 에너지 절약 실천지침 조항을 넣었다. 사내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반기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점검한다는 조항이다. 그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와 '회생제동 에너지 사용' '에코드라이브'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했다. 코레일 사내의 사업장들이 탄소배출권을 서로 사고파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본부가 목표치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 여분의 탄소배출권이 생겼다면, 이를 예상치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사업장에 파는 식이다. '모의' 거래이니만큼 금전적 성격이 없는 '사이버 머니'를 사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는 연말 사업장 평가 시에 반영한다. 모의거래제를 도입하고 나서 코레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예측치보다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계획 대비 38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 의식이 확산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철도공사

KTX 서울~부산 구간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철도로서는 최초다. 코레일은 KTX를 이용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7분의 1정도로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매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 중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점포나 리뉴얼하는 매장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녹색제품을 쓴다는 의미의 협약이다.

'회생제동 에너지 사용'은 철도가 운행될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책이다. 고속철도(KTX) 등 전기로 운행되는 열차는 운행 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면 에너지가 소비된다. 계속 앞으로 가려는 기차의 관성과 맞물려 멈추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의미다. 열차에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면 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10퍼센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1백만큼의 에너지를 쓰면 이 중 5~10만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전지하철과 인천지하철 등 일부 도시철도에서도 이 장치를 사용해 회생제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광동제약

포장재 무게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광동제약은 선도적으로 '친환경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제약회사 중 하나다. 지난 2010년에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인정받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는 '에너지위너상'을 받기도 했다.

광동제약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우선 설비투자를 통한 에너지 절감이 있다. 공장에 재증발 증기 회수 시스템과 폐열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소모량을 줄였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얻었다.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약 92.38톤의 이산화탄소(CO_2)를 줄였다.

제품의 포장재를 경량화해 에너지를 절감하기도 했다. 광동제약의 대표상품 중 하나인 '비타500'과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포장재 무게를 줄였다. 비타500 1백밀리리터의 경우 기존의 1백26그램에서 1백19그램으로 줄여 7그램의 무게를 줄였다.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의 5퍼센트다.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는데, 1년 생산량 기준으로 1천2백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다. 이는 30년생 잣나무 37만5천 그루가 1년 동안 줄인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옥수수수염차 3백40밀리리터 페트병의 경우는 2그램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2퍼센트 절감했다.

세븐일레븐

간판 자동소등 등 점포 전력사용량 줄여

유통업체 중에서는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09년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까지 20퍼센트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점포의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의 전력사용량을 점포별로 줄이고, 간판의 소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설치 등이 있다.

점포의 조명도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로 바꾸고,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점포별로 도입한다. 새로 들어서는 점포나 리뉴얼하는 점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전년 대비 0.5퍼센트의 온실가스를 줄였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2퍼센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점포(가칭)'도 만든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점포를 꾸미고, 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해 에너지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포다. 서울 지역부터 추진 중이다. G

글·하주희 기자

집에선 '한 등 켜기'… "생활에 지장 없어요"

'절약의 달인' 탤런트 전원주… "아끼면 노후가 편안해져요"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의존도가 98퍼센트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각 가정과 기업에서 에너지 10퍼센트를 절약하면 연간 20억 달러(2조2천억원)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절약의 달인' 배우 전원주씨를 만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전원주 식(式)' 절약 방법을 들었다.

서경리 기자

전원주씨는 '에너지 절약의 달인'이다. 그는 에어컨이나 세탁기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 번 열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한다.

구기동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전원주씨의 빌라는 해가 짐과 동시에 어두컴컴해진다. 방이며 거실, 부엌에 모두 조명기구가 있지만 신문이나 책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딱 한 개의 등만 켜기 때문이다. 그의 '한 등 켜기'는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오랜 습관이다. 자신과 달리 전등 끄는 걸 자주 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조명등 스위치 밑에는 '불 끄세요'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우리는 볼 일 보러 잠깐 화장실 들어갈 때는 아예 불을 안 켜요. 손자들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불평하면 잠깐 눈을 감았다 떠보라고 일러줘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잘 보이거든. 집안을 늘 어둡게 해놓고 있으니까 '전설의 고향 세트장 같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웃음). 그러면 나는 '이게 훨씬 무드 있고, 부부금실도 좋아진다'고 받아치죠. 전기 아까운 줄 모르고 다들 너무 대낮처럼 밝게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에어컨·선풍기 대신 부채… 세탁기도 잘 안 써

전기에 관한 한 지독한 '짠순이'인 그는 잠자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돈다.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중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거실 한편에 놓인 에어컨은 작동시키지 않아 가구(?)가 된 지 오래고, 선풍기보다 부채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부채가 유난히 많다.

세탁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빨래가 나올 때마다 세제를 푼 물에 담가놓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으로 빨아 넌다. 마지막 헹굼물은 버리지 않고 커다란 통에 붓는다.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는 세수 헹굼물, 빨래 헹굼물 등 깨끗한 물을 따로 모아 빨래할 때나 화장실에서 허드렛물로 사용한다.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설거지할 때도 수돗물을 틀지 않는다. 통에 물을 받아 씻어내고, 마지막 단계에서만 흐르는 물에 헹군다.

냉장고는 열 때마다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한 번 열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한다. 냉장고 안을 많이 채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일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주는 반찬들도 빨리 먹어야 하는 것들은 앞줄에, 길게 보관해도 될 것들은 뒷줄에 넣는 식으로 배열한다.

겨울에도 난방을 자주 하지 않는다. 대신 옷을 껴입고 많이 움직인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마룻바닥의 온기부터 살핀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남편은 항상 '방금 돌렸다'고 변명하지만, 바닥의 따뜻한 정도나 온수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얼마나 가동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남편은 에너지 절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지요. 저희는 온열 기능이 있는 돌침대를 쓰니까 굳이 바닥을 데울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도 보통 6시에 일어나는데 5시쯤 눈을 뜨면 돌침대 플러그부터 뽑아요. 한 시간 정도는 열이 지속되니까, 그 열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제적 여유 생겨도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에 관한 잔소리는 아들 내외, 손자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길을 가다가도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틀어놓고 문을 열어둔 가게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공중화장실이라도 대낮에 쓸데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끄고 나오고, 휴지를 끝도 없이 둘둘 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얼굴이 알려진 배우인데다 절약의 대명사로 인식된 덕분에 대부분 수긍하지만,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게 다 나라 것이고,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말로 이해시킨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06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개성 출신인 그는 1·4후퇴 때 부모님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후 인천에 정착해 단칸방을 얻어 여덟 식구가 살았다. 가난한 집 6남매의 장녀이다 보니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3년간의 교직 생활을 접고 그는 동아방송 성우로, 배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호탕한 웃음으로 주목을 받기까지, 그는 30여 년의 연기생활 중 20년을 무명으로 보냈다. 그 배고픈 시절을 거치며 그는 자연스럽게 절약을 익혔다. 인기를 얻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지금도 그는 오랫동안 몸에 밴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

> **전원주식 절약 노하우**
>
> -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불 안 켜기. 신문이나 책 볼 때 제외하고는 한 등 켜기 실천
> - 잠자기 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모두 뽑기
> - 에어컨은 아예 가동 안 해. 선풍기도 좋지만 부채 애용
> - 세탁기 대신 손빨래. 헹굼물은 따로 모아 화장실 허드렛물로 사용
> - 승용차 있지만 거의 이용 안 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애용
> - 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도 소등 확인. 종이컵 두세 번 사용

"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안 타요. 버스나 지하철이 닿는 곳이라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요. 요즘도 버스나 지하철 타면 '전원주랑 똑같이 생겼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에는 그런 게 불편해서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신문으로 가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스스럼없이 인사를 주고받아요."

커피 먹은 종이컵도 "한 번 더 써도 된다"

해마다 저축의 날이면 꼭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예인 중 한 명인 그는 "이렇게 아끼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웃었다.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포장을 받은 이후 기업체 강의도 많이 나간다는 그는 "아껴라, 그러면 당신의 노후가 풍족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진다고 마무리를 한다"고 말했다.

연기자로서의 활동도 활발해 현재 악극 〈부모님 전상서〉, 〈폭소 춘향전〉과 연극 〈친정엄마〉에 출연 중이며 매주 금요일 KBS 〈아침마당〉의 고정 패널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무대에 설 때나 방송을 할 때 활력이 생긴다고 한다. 인터뷰가 있던 날은 〈부모님 전상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분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가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모두 나온 것을 확인한 후 불을 껐다. 커피가 담겨 있던 종이컵도 "한 번 더 써도 된다"며 세면대로 가져갔다. 과연, 절약의 달인이었다.

글·최선희 객원기자

절약 아이디어 '반짝'… "실천이 중요해요"

생활 속 작은 절약사항 찾아내 가족 간 경쟁·반성으로 실천력 높여

지난 겨울 전력부족 사태를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동참한 시민들 덕분이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이 많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낸 송우섭씨 가족, 직접 LED 전등을 만들어 전기를 아끼는 이시내씨 가족, 실천표를 점검하는 서현엽 학생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송우섭(46·공무원)씨 가족

"절약 경쟁 속에 가족 간 세대차도 줄었어요"

에너지 절약은 제5의 에너지이며 1퍼센트의 지식과 99퍼센트의 실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요일별 에너지 절약 "그린 7day"라는 녹색가족 성장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키로 했습니다. "아빠, 수(水)요일을 물 절약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어요!"라는 딸의 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월(月)요일은 TV 끄고 온 가족 독서하는 날, 화(火)요일은 온 가족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날, 수요일은 부모님 발 씻겨드리고 물 절약하는 날, 목(木)요일은 가족과 산책하고 나무와 화분을 가꾸는 날, 금(金)요일은 재활용하는 날, 토(土)요일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 타는 날, 일(日)요일은 에너지 재충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가족 간에 실천 경쟁을 유도하려 요일별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1천원씩 물리기로 했습니다. 우수자 한 명을 달마다 뽑아 모은 벌금을 상금으로 주고, 에너지절약왕 임명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 '에너지 절약 넘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니 한 해의 행동을 평가하는 달이었습니다. 1월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고 설날 성묘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월에는 내복을 입어 겨울철 난방온도 20도를 지켰고 이면지를 연습장으로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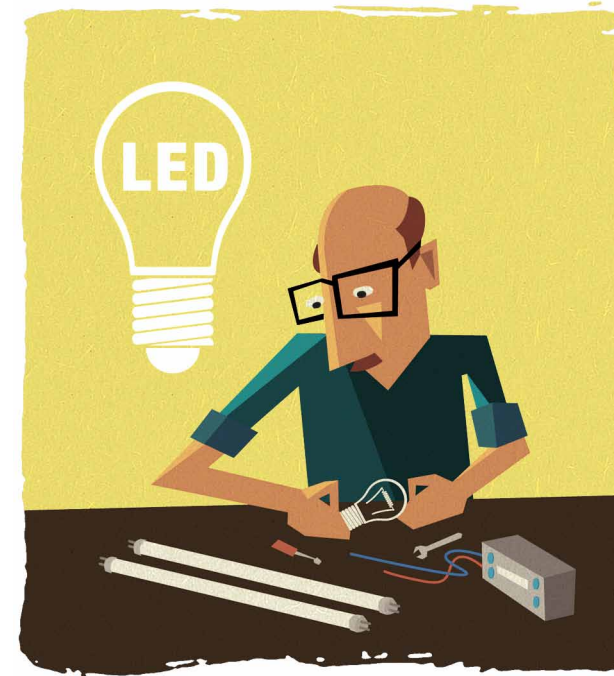
이 외에도 소소한 생활수칙을 많이 정했습니다. 전기플러그에 가전제품별로 이름을 적어둬 쉽게 코드를 뽑을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필요 이상 전력을 쓰는 일을 막으려 시간 알람 기능을 설정해 뒀습니다. 리모컨 사용을 줄이고 세제보다 쌀뜨물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지난해보다 에너지를 5퍼센트 적게 썼습니다. 단지 에너지만 절약한 게 아닙니다. 가족 사이가 한층 단란해졌고 매일매일 흥미로운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간 세대차이도 줄이고 돈까지 아끼는 일이 바로 에너지 절약이었습니다.

이시내(25·대학원생)씨 가족

"아버지가 직접 모든 전등 LED로 바꿨어요"

까까머리에 까만 교복을 입고 청계천 상가를 누비던 '전기소년'이 있었습니다. 광석라디오를 만들고 조립하던 손놀림은 이제 없지만 지금도 종종 베란다 한구석에서 전선을 만지작거리는 아버지. 어릴 적 호기심 그대로 전기배선공이 된 아버지는 늘 일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에너지를 아끼려 하면 형광등을 끄고 전기 코드를 뽑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집안의 전등을 LED로 바꾸는 겁니다.

LED 전등은 비쌉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직접 LED 전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전등을 사서 본체에 있는 소켓 등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원하는 길이의 LED 바를 사서 여기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의 밝기가 적당한지,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지 아버지는 자리 잡고 앉아 계속 고민하고 실험했습니다. 문득 그 위로 까까머리 소년의 모습이 겹쳐졌지요.

거실과 주방, 세 개의 방 모두 전등을 바꿨습니다. '멀쩡한 전등을 왜 바꾸느냐'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LED와 형광등의 전력 소비량, 수명, 효율을 비교하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가정 경제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민하는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LED 바를 이리저리 만지며 고민합니다.

서현엽(15·중학생) 학생 가족

"개인 실천표 만들어 매주 반성회 가져요"

우리 집에서 절전을 실천하는 방법은 개인 실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표에 기록하고 매번 반성회를 가집니다.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개선안을 만듭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만 보고 TV 끄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빠	×	○	△	△	○	○	×
엄마	△	△	○	△	△	○	△
형	×	○	○	△	△	○	×
나	×	△	△	△	○	△	×

문제점 | 주말 TV 시청률이 높습니다. 아빠는 가끔 TV를 켜놓고 보다가 그대로 주무시기도 합니다. 엄마도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TV를 켜놓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TV를 켜놓습니다.

개선안 |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TV를 보고 나서 끄는 습관을 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TV 시청 대신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빠	○	○	○	○	○	○	○
엄마	△	○	○	△	○	○	△
형	△	○	○	○	○	○	△
나	△	○	△	○	○	△	△

문제점 | 엄마는 요리를 하면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습니다. 형과 저도 오며 가며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개선안 | 주말에 미리 식단을 짜두고 필요한 음식들은 한꺼번에 꺼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꼭 열어야 합니까?'라는 문구를 달아 냉장고 문을 열기 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G

글 · 김효정 기자

일러스트 · 신명호

“올 여름은 쿨맵시로 쿨하게 보내요”

가수 이현우·기상캐스터 오수진씨가 말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냉방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쿨맵시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홍보대사는 가수 이현우씨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씨다. 평소에도 에너지절약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두 사람을 통해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을 알아봤다.

쿨맵시 모델 가수 이현우씨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씨. 쿨맵시 복장은 사무실에서 입어도 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쿨맵시’는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결합된 신조어다. 시원하면서도 예절과 건강, 패션까지 고려한 옷차림을 뜻한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입지 않아도 격식이 있는 비즈니스 복장이 쿨맵시 스타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타이, 반팔 셔츠, 무릎길이 스커트 등 간편하고 시원한 쿨맵시 복장은 체감온도를 2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쿨맵시 복장을 하면 실내온도를 2도 정도 높일 수 있어 연간 1백97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이는 5~8년생 소나무 약 7억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쿨맵시 복장으로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도 2천6백원(가구당 에어컨 가동 연평균 일수인 58일 기준)의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두통, 어지럼증, 피부건조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다.

쿨맵시 복장 체감온도 2도 낮춰

환경부는 쿨맵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수 이현우씨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씨를 모델로 쿨맵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중이고 쿨맵시의 필요성과 코디방법, 과학적 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참여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전개해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현우씨와 오수진씨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녹색생활 실천 기후변화 주간 개막식’에서 방송인 설수현씨, 탤런트 공현주씨 등과 함께 녹색생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5월 말 서울 신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직장인들을 위한 쿨맵시 화보 촬영현장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이날 이현우씨와 오수진씨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둘 다 “방송출연 등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장은 입지 않는 편”이라며 “평소 즐겨 입는 스타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쿨맵시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이현우씨는 흰 티셔츠에 푸른색 계열의 조끼와 바지, 그리고 직물 소재의 구두를 착용했다.

이번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현장에 와 있던 송은영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교수는 이씨의 복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직물 소재 차가운 색 계열의 옷이 시원

“입는 사람은 물론 보는 이에게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마 소재의 직물의류와 한색(寒色) 계열로 통일했습니다. 조끼는 격식을 차리기 위해 재킷을 대신한 것인데, 칼라를 없애 훨씬 시원하게 처리했죠. 신발과 벨트의 소재 역시 가죽이 아닌 직물류입니다. 통풍이 잘되는 직물소재 신발은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죠.”

오수진씨는 스커트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얼룩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를 가느다란 가죽벨트로 묶어 라인을 살렸고, 까만색 구두를 신어 전체적인 조화를 꾀했다. 오씨의 복장에 대한 송 교수의 설명이다.

“우선 라운드 칼라여서 목이 시원해 보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A라인 스커트를 입었고요. A라인 스커트는 걸을 때마다 바람이 들어가는 일명 ‘굴뚝 효과’가 큰 치마입니다. 가느다란 가죽벨트로 허리 라인을 살렸는데, 사실 가죽보다는 직물소재 벨트가 있으면 쿨맵시가 더 살죠. 최대한 여유 있게 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여러 벌의 옷을 쉴 새 없이 갈아입고 포즈를 취했다. 시원하고 편안하면서도 지나치게 격이 떨어지지 않아 직장인이 입어도 무리가 없는 패션이라는 게 이들이 선보인 복장의 공통점이었다. 촬영 중간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평소에도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급하지 않으면 1시간 이내는 걸어다녀요”

“오래 전부터 반달곰이나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관심만 있었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녹색생활실천 시민운동에 동참하면서 에너지절약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요즘 걷는 걸 즐깁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1시간 이내의 거리는 걸어서 다니죠. 5층 이하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요. 저희 집이 29층인데 등산하듯 걸어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기 때문에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이현우)

“저도 걷는 걸 좋아해요.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이나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하늘을 보면서 그날 일기예보에서 할 멘트를 작성하곤 하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오수진)

두 사람은 “쿨맵시 전도사로서 이번 캠페인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한국패션협회, 롯데백화점 등이 주관한 쿨맵시 의류 전시 및 판매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G 글·서철인 기자

더위 잡고·환경 지키고·돈 아끼는

1석3조 쿨맵시 스타일 따라하기

❶ 헤어스타일은 짧고 단정하게
- 여성은 앞머리를 내리지 않고, 짧게 정리하거나 깔끔하게 묶는다.
- 남성은 옆머리와 뒷머리가 깃에 닿지 않게 한다.

❷ 노타이, 셔츠로 세련되게
-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반팔 셔츠의 목 주위 단추를 오픈한다.
- 상의는 밝은 색을 선택하고 줄무늬나 시원해 보이는 프린트를 입는다. 단 비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 속옷을 겹쳐 입지 않는다.
- 하의는 앞 허리 주름이 넉넉하고, 신축성이 높은 면,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품이 여유로워 통풍이 잘되는 것을 입는다.

❸ 기능성 소재로 시원하게
- 가볍고 바람이 통하는 마, 레이온 섬유 등 쿨 소재의, 몸에 접촉면이 적은 빳빳한 느낌의 옷이 쾌적하다.
- 신발은 천이나 얇은 소재의 단화와 가벼운 운동화로 발의 온도를 내려 편안하고 건강한 발을 만든다.

日국민 자발적 참여… 21퍼센트 절전 이뤄

원전 가동 중단에도 자신감… "노인가정은 에어컨 켜세요" 권장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절전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11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54기의 원전을 모두 중단해 지난해보다 올해의 전력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하지만 절전을 하더라도 노인들이 있는 가정은 에어컨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노인들이 있는 가정은 에어컨을 어느 정도는 켜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 냉방장치를 전혀 가동하지 않다가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노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 노인은 "냉방장치를 켜지 않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 보니…"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원전중단에 따른 전기부족이라는 국가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여름도 대정전의 위기 없이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지난해 절전의 성공 덕분이다.

지난해 여름 일본 정부는 전년 대비 15퍼센트 절전을 목표로 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1퍼센트 초과 절전을 달성했다. 올들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전 분위기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주택가를 걷다 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창문에 '고야'라는 덩굴 식물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야는 심기만 하면 두세 달이면 2.5미터까지 자라 '녹색 커튼' 역할을 하며 실내온도를 낮춰 준다. 덩굴식물이 없는 창문에는 직사광선을 막아 주는 '발'들이 대부분 걸려 있다.

가정·직장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일본은 또 전력위기를 계기로 기업은 물론 각 가정도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로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백열전구보다 전력사용량이 20퍼센트에 불과한 LED 전구는 3·11 대지진 전에 전체 전구 판매량의 10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최근 절반을 넘어섰다. 가격이 거의 10배까지 비싸지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비싼 LED 전구로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난해 여름 일본의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정장 대신 반팔 티셔츠, 청바지 차림에 샌들을 신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여름철 복장규정은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는 물론 알로하셔츠, 가리유시셔츠, 스니커, 샌들도 허용했다. 알로하셔츠는 하와이에서, 가리유시셔츠는 오키나와에서 만들어진 여름용 셔츠이다. 다만 찢어진 청바지와 해수욕장용 샌들은 금지됐다.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여름철 복장규정을 '쿨비즈'라고 했다. 절전을 위해 쿨비즈보다 한 발 더 진화한 '슈퍼 쿨비즈'가 유행이다. 정부는 물론 상당수 기업도 슈퍼 쿨비즈를 채택하고 있다. 전력수요가 많은 낮시간에는 복사기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도 각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다. 물론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낮시간대 에스컬레이터 가동 중단 등은 기본이다.

일본 국민의 더위를 식혀 줄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린맥주는 얼음에 타 먹는 '아이스 플러스 맥주'라는 캔맥주를 시판한다. 기린맥주는 "특수 효모를 사용해 보통 맥주보다 색깔과 맛이 진해 얼음에 타 먹어도 맥주 특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밝혔다.

충전기 내장형 TV 등 아이디어 상품 쏟아져

실내온도를 28~29도로 설정하는 회사가 늘면서 물안개 내뿜는 휴대용 선풍기, 목에 두르면 시원해지는 스카프, 소형선풍기가 부착된 작업복, 휴대용 냉기 분사기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바(東芝)는 최근 충전기 내장형 TV를 시판했다. 평소 충전을 해 두었다가 정전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력피크 타임에는 충전한 전기를 이용해 절전도 가능하다.

일본은 평소에도 절전을 생활화하고 있다. 겨울에는 '유단보'나 '고타쓰'와 같은 절전형 난방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유단보는 뜨거운 물을 넣은 일종의 보온병. 겨울에도 잠을 잘 때 난방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두꺼운 이불 속에 유단보를 넣고 잔다. 고타쓰는 밥상·식탁 등에 전기난로와 이불을 붙여서 만든 난방장치이다.

한 일본 주부는 "한국 친구 집에 갔더니 냉장고 냉동실을 자주 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냉동실을 자주 열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절전의식은 한국보다 전기료가 2배 이상 비싼 것도 한몫하고 있다. G

글·차학봉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

일본 환경단체 FS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덩굴 식물로 창을 가린 일본의 한 청사건물.

원전 가동 중단 속 일본의 전력 운용

"낮시간만 견디면 된다"… 절전운동에 큰 의지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도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전국 평균 0.1퍼센트 정도 여유전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절전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의 9개 전력회사 중 도쿄전력(4.5퍼센트), 주고쿠(中國·4.5퍼센트), 주부(中部·5.2퍼센트), 호쿠리쿠(北陸·3.6퍼센트) 등은 비교적 많은 예비전력 확보도 가능하다. 원전의존도가 30퍼센트라는 일본에서 원전가동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전기가 일부라도 여유가 발생할 수 있을까. 30퍼센트라는 것은 1년 평균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8월을 기준으로 하면 18퍼센트까지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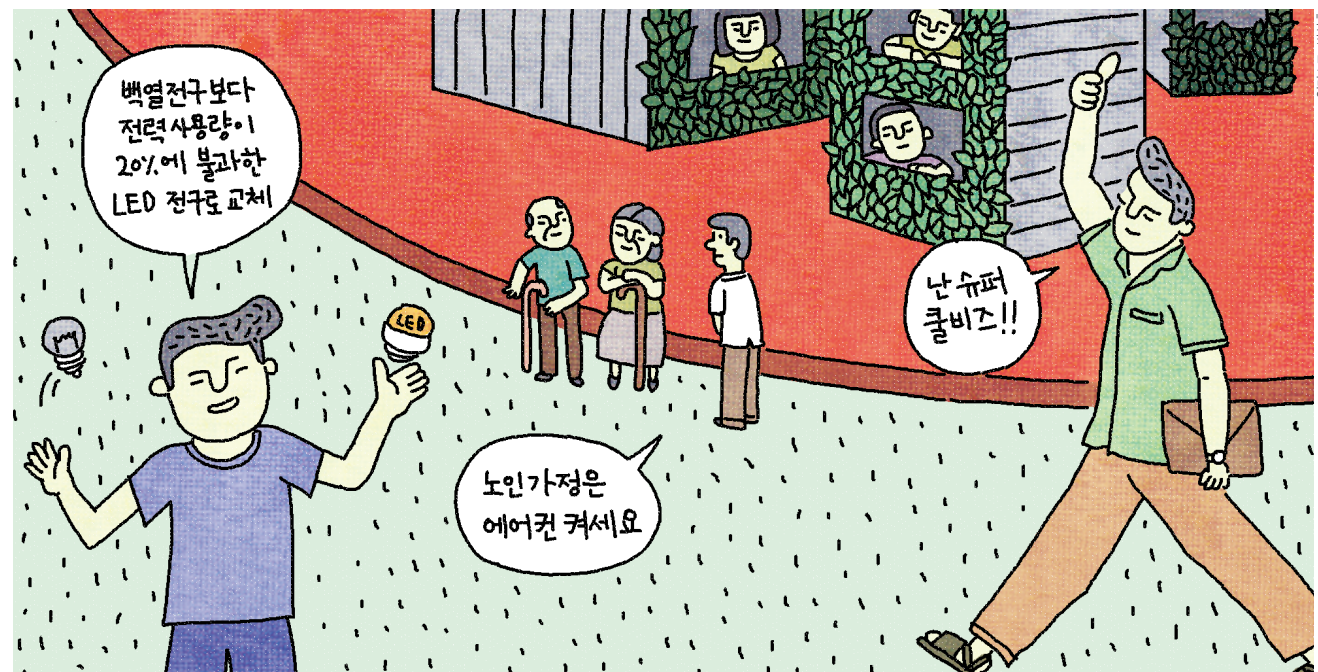
전력사용량은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오후 1~4시에 1억7천9백87만 킬로와트(2010년 기준)까지 급증한다. 비수기보다 30~40퍼센트 정도 사용량이 많다.

이 때문에 전력회사들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을 기본으로 가동하고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화력과 양수발전 등을 추가한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력수요 피크시에 발전하는 시설이다.

일본정부는 원전(3천4백83만 킬로와트)을 전면 중단했지만, 절전(9백11만 킬로와트)에다 낡아 운행정지에 들어간 화력발전소(2백73만 킬로와트), 임시 비상발전설비(3백18만 킬로와트), 기업체의 자가발전설비(3백1만 킬로와트), 양수발전(1천9백67만 킬로와트) 등을 총동원, 전력부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름철 오후 1~4시의 전력피크기. 전력피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은 낮시간대 전력요금을 비싸게하고 심야시간대 전력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도 확대했다.

심야에 축전해서 낮시간에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최근 보급이 급증하는 전기자동차를 활용, 전기가 남아 도는 심야시간에 저렴하게 충전했다가 낮시간에 사용하는 것도 유행이다.

하지만 산업계와 전력회사들은 8퍼센트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상보다 무더워 냉방수요가 더 늘거나 화력발전소가 고장 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친환경기술 모아모아… 알뜰한 빌딩들

태양광 · 지열 · 빗물 재활용… 리모델링 바람 거세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인 '그린빌딩'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진 포스코 그린빌딩은 태양광, 지열,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매년 약 1백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월 리모델링을 마친 LG트윈타워는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월 1천만원 이상 절약했다.

서울 청계천변에 자리 잡은 '센터원(CENTER1)' 빌딩.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우수등급과 미국 친환경인증(LEED) 예비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빌딩이다.

지난 3월 9일,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이날은 포스코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기공하는 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환경경영이 기업의 윤리라는 경영철학으로 녹색성장 부문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코 그린빌딩 건축으로 친환경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설계, 건설, 운영되며 철거될 때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그린빌딩'(Green Building)이 새로운 빌딩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린빌딩이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삼는 빌딩. 에너지 부하는 낮추는 반면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공해 저감기술을 적용,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되며,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에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획된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포스코 그린빌딩 태양광 · 지열 · 빗물 재활용

포스코 그린빌딩은 지상 4층·지하 1층의 오피스와 지상 3층의 공동주택, 조립형 모듈러 건축물로 구성되며, 2013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빌딩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확보하고, 포스코에서 개발한 내진(耐震) 강재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공장에서 최대한 건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용한 이 건물은 시멘트 대신 철강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였다.

포스코 홍보실 김진원 부장은 "연간 발생되는 고로 슬래그를 전량 시멘트 대용으로 쓸 경우 매년 약 1백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나무 9천4백 그루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며 "건물의 생애주기를 60년으로 본다면, 포스코 그린빌딩을 통해 감축되는 이산화탄소는 5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연세대 연구진은 '2017년까지 에너지 60퍼센트 저감형 건축물을,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공급한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해 포스코 그린빌딩을 실험동(test-bed)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60퍼센트, 80퍼센트, 1백퍼센트 에너지 저감형 오피스·공동주택 모델과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LG트윈타워 LED조명 · 고효율 냉난방기 사용

포스코 그린빌딩뿐만이 아니다. LG트윈타워,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등도 대표적인 국내의 그린빌딩들이다.

4월 17일 새 단장을 마치고 친환경 빌딩으로 다시 태어난 LG트윈타워 서관은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고,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이전보다 20퍼센트 가까이 에너지를 절감시켰다. 그 결과 LG트윈타워 전기사용량은 1년 전보다 시간당 31만 킬로와트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는 무려 1천5백5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덕분에 전기요금도 1천만원 이상 절감했다. LG는 트윈타워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곳곳에 자동센서를 설치, 일정시간 사람의 이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도록 했다.

LG트윈타워 동관은 6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LG트윈타워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정비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스마트IT 중심 건물이다. 무선랜을 기반으로 한 FMC(유무선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 임직원들에게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제공한다.

미래에셋 센터원 빗물저수로 등 친환경 설계 적용

중구 수하동에 자리 잡은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도 미래지향적인 첨단 오피스 빌딩으로 손색이 없다. 이 건물은 에너지 절감성능이 뛰어난 'low-e 복층유리'와 빗물저수조 등 국내 친환경 및 미국 친환경 인증 설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이 건물은 이스트타워와 웨스트타워의 두개 동으로 지상 32층, 지하 8층 규모다. 총 면적은 17만제곱미터(5만1천평)로 도심권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미래에셋, 미래에셋맵스 운용, 미래에셋증권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홍콩,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외국에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현지법인들과 실시간 회

2013년 4월 준공 예정인 송도의 포스코 그린빌딩 조감도.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펀드 교육 등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내 인터넷 방송 '미래에셋미디어' 스튜디오도 꾸몄으며, 화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방송 장비도 대거 도입했다. 2층 로비에는 손님맞이 공간을 꾸며 약식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대형풍력 터빈 장착

바레인의 세계무역센터(BWTC)는 직경 29미터짜리 대형 풍력터빈 3기를 설치,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의 11~15퍼센트가량을 자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완의 1백1층(5백9미터)짜리 건물인 '타이베이 101'은 조명, 냉난방, 급배수 시설을 저에너지·고효율 시스템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빙축열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또,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추가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뉴욕의 상징'으로 불리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도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그린빌딩을 향한 리모델링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빌딩은 창문개량, 냉난방 설비와 조명시설 정비 등의 '그린' 개조작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3분의 1 이상 줄여 연간 4백4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빌딩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다. 건물은 한 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40퍼센트, 전체 탄소배출량의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 도쿄, 서울 같은 대도시만 따지면 에너지소비량은 무려 70퍼센트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이용해 건물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반면에 에너지 소비는 줄임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G

글·이범진 기자

멀티탭은 절전의 기본… 도전! 대기전력 '0'

4천~6천원 냉기차단 커튼 사용하면 냉장고의 새는 전력 막아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절전·절수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절전형 냉장고나 절전형 에어컨은 기본이고, 절전형 멀티탭이나 발광다이오드(LED)전구, 냉기차단커튼, 가정용 전력측정기 등과 같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절전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은 줄이고 전기료를 아끼는 똑똑한 절전 제품들을 모아 봤다.

저가 LED전구 보급… 전력량 5분의1로

가정의 전구를 LED전구로만 교체해도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LED전구는 백열전구를 사용할 때보다 전력 사용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수명 역시 백열전구에 비해 25배나 길어 하루 10시간을 사용할 경우 7~10년 동안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은을 비롯한 중독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조명업체들마다 경쟁적으로 보급형의 저가 LED전구를 출시하고 있다.

대기전력 막는 절전형 멀티탭 · 콘센트타이머

대기전력이란 실제로 가전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낭비되는 전력이다. 대기전력은 가정 전력 소비량의 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천억원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 대기전력의 '낭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개별 스위치가 있는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절전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주부 조세라(서울 도봉구)씨 역시 "절전의 기본은 멀티탭 사용"이라고 강조한다.

조씨는 수기를 통해 "특히 디브이디(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나 오디오처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마다 플러그를 꽂았다 뽑았다 하기 번거로운 가전제품들까지도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해 대기전력을 손쉽게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탁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 베란다 등 실외에 설치되는 제품이다 보니 사용하지 않아도 플러그를 꽂은 채 두기 쉽다"는 조씨는 "세탁기 역시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해 평소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스위치를 내려 대기전력을 습관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싱크대 벽면에 있는 소형가전용 매립형 콘센트에도 스위치가 내장된 멀티탭을 꽂아 사용한다. 조씨는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할 때는 플러그마다 '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해당 제품의 제품명을 적은 이름표를 달아 두면 분별하기 쉽다"고 조언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영향으로 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에어콘 판매량이 줄어든 반면 선풍기의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5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서 고객이 선풍기를 고르고 있다.

영하 5도 냉풍 나오는 물풍기 · USB 선풍기

얼음을 얼려 사용하는 냉풍기에 이어 '물풍기'도 인기다. 선풍기에 물을 채워 가동하면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동시에 가습기처럼 물이 수증기로 변해 약 영하 5도 정도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일반 에어컨 대비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게 특징이다. 제품의 가격대도 6만~10만원대 초반이라 에어컨에 비해 부담이 없다. 자동차 에어컨에 꽂아 사용하는 '차량용 미니선풍기'나 '쿨매트' '멍석'도 적은 비용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인기 높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오피스족에겐 유에스비(USB)를 활용하는 냉방가전들이 있다.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USB 선풍기나 USB바람방석 등이 대표적이다.

냉기차단 커튼 · '냉장고 지도' 효율적

냉장고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큰 제품이다. 냉장고의 적정온도는 냉동실 섭씨 영하 15~18도, 냉장실 3~4도다. 냉장고의 문을 열어 냉기가 새 나가게 되면 냉장고 내 온도는 쉽게 올라간다. 다시 제 온도를 찾기까지 그만큼의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되도록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절전형 아이디어 상품 중 인기를 끌고 있는 절전형 냉장고 냉기차단 커튼(이하 냉기차단 커튼)은 요즘처럼 냉장고를 자주 여닫게 될 때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반투명 소재의 커튼으로 돼 있어 냉장고 내 내용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4천~9천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냉기차단 커튼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냉장고를 자주 여닫게 되는 가정에서 많이 찾고 있다.

"냉기차단 커튼을 달고 나니 냉장고 냉기차단은 물론 커튼을 볼 때마다 '냉장고 문을 재빨리 닫아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됐다"는 후기도 눈에 띈다. 냉기차단 커튼과 함께 냉장고 문에 냉장고 안의 내용물을 표시한 '냉장고 지도'를 붙여 놓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간 전기사용량 확인해 주는 전력측정기

전력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전력 사용량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력측정기가 내장된 콘센트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가정용 전력측정기는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시간대별 측정이 가능하다. 일부 기기는 전기 사용량을 돈으로 환산하는 기능도 내장돼 있다. 전력측정기를 활용하면 특별히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노후 제품을 가려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전형 제품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대기전력 진단 및 제로 컨설팅 실시

6월 10일까지 접수… 참여 가정에 멀티탭 증정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확산·정착하기 위한 '대기전력 진단 및 제로 컨설팅'을 5월 2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가족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기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대기전력 측정요원이 '대기전력 제로 컨설팅'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기기의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플러그 뽑기·멀티탭 스위치 끄기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전력량을 컨설팅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전력 진단 및 제로 컨설팅' 참여 가정은 2개월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 내 대기전력 실천 여부를 조사한 뒤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가정에는 절전형 멀티탭을 증정한다. 6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서울, 경기(성남, 고양), 강원(원주) 지역의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은 대기전력 절감 등 전기절약을 위해 8월 22일 에너지의 날 6개 지역(서울, 성남, 대전, 광주, 원주, 천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멀티탭 스위치 끄기, 에너지절약마크 제품 구입하기 등 대기전력 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대기전력 절감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075-4633

값싼 에너지 원한다면 原電에서 찾아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원전의 3~10배 비싸 현실성 없어

때 이른 초여름 더위로 전력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미 5월초 전력공급 예비율이 위험수위인 7퍼센트대로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비상상황인 5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9월 15일 전국 곳곳을 암흑과 마비상태에 빠트렸던 블랙아웃(대정전)의 혼란이 다시 예고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몇 시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1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석탄 60원, LNG 1백40원, 석유 1백80원에 이르는 데 비해 원자력은 40원이 안돼 값싸고 안정적인 대용량 전원(電源)으로 꼽힌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

전력대란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총 전력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전력의 추가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전력예비율은 보통 10퍼센트 이상 유지돼야 안심할 수 있다. 일부 발전소의 사고로 전력생산이 중단되어도 그 정도 예비능력이면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여름과 겨울 전력성수기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10퍼센트를 훨씬 밑돌고 있다. 현재 국내 발전시설을 모두 가동할 경우 7천8백만킬로와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7천7백만킬로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예비율 5퍼센트(4백만킬로와트) 수준을 지켜 내기도 어려운 심각한 국면이다.

그런데도 당장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전력을 사 올 수도 없다. 현재 고리와 울진·영광에서 모두 7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지만 신울진 1·2호기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에야 전력사정에 숨통이 틘다.

철강·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 높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1.7배나 된다. 1달러의 GDP를 위한 전력사용량은 한국이 시간당 0.580킬로와트인 데 비해 미국은 0.359, 프랑스 0.328, 일본 0.206, OECD 평균 0.339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만 해도 한국은 2009년 기준 시간당 8천8백33킬로와트로 일본 7천8백18킬로와트, 영국 5천6백7킬로와트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우리가 지나치게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또한 낮은 현실인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가정, 기업, 농촌 할 것 없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값싼 전력에 의존하는 탓이 크다.

우리나라는 21기의 원전이 총 전력공급의 약 24.6퍼센트(2012년 3월 에너지원별 발전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화력발전은 70퍼센트(석탄 37.8, 석유 13.5, 가스 18.8퍼센트)이다. 나머지는 수력과 열병합,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극히 미미하다. 전체 전력소비 가운데 가정에서 쓰는 양은 14퍼센트 정도인 반면 산업용 소비가 55퍼센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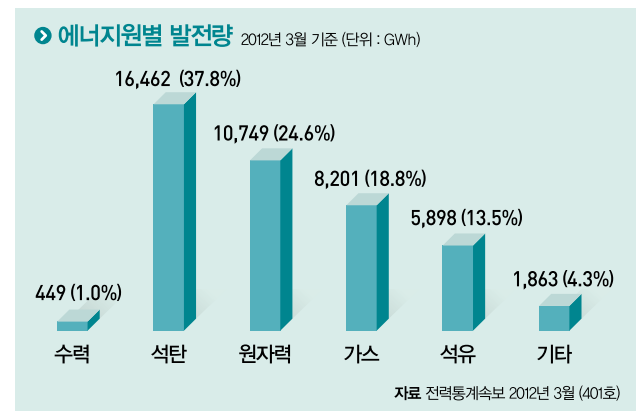
반면 일본의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은 30퍼센트 남짓이다. 어떤 이유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국내의 모든 원전이 멈춰 설 경우 국내 산업체의 25퍼센트 이상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화력발전 비중이 원전의 2배에 이르지만 연료인 화석에너지의 97퍼센트를 수입에 기대야 해 발전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원전 멈추면 국내 산업체 25퍼센트 가동 중단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석유가격 폭등으로 전년 대비 35퍼센트나 증가한 1천6백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연간 총 수입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무역흑자(3백33억 달러)의 5배 규모다.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쏟아 넣는 실정이고 보면 효율 높은 에너지원 개발은 절박한 현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원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석탄 60원, LNG 1백40원, 석유 1백80원에 이르는 반면 원자력은 40원이 안 된다. 값싸고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 전원(電源)으로서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그 활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대적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전혀 현실성 없는 이상론(理想論)일 뿐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대용량 땐 엄청난 환경파괴

1킬로와트 생산단가는 태양광 4백70원, 풍력 1백30원 등으로 발전비용이 원전에 비해 3~10여배나 비싸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부존량이나 개발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다.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계절별·시간대별 편차가 심하며, 날씨와 일사량의 변수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풍력은 설치비용이 비싸고 설치 부지의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원전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원전의 50배가 넘는 광대한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대용량 전원으로 개발하려면 역설적으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한다. 대규모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지금까지 원전만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된 기술은 없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50여 년 세계 원전 역사에서 중대한 오점(汚點)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모두 안전관리의 실패가 가져온 방사능 누출의 재앙이었지 원전 그 자체가 갖는 기술적 결함의 문제는 아니었다. 경제적 합리성이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신뢰성, 기술적 실현성의 차원에서 원전 확대는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G

글·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독서의 해' 특집으로 진행된 북 콘서트 '수요북콘'. 포미닛 권소현씨와 문용린 독서의해추진위원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사회자 신혜정씨와 함께 '독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왼쪽부터). '원조 홍대 여신'으로 통하는 뮤지션 이아립이 오프닝 공연을 했다.

"혼자만 읽지 말고 읽은 책은 나누세요"

최광식 장관-문용린 위원장, '수요북콘'에서 독서콘서트

지난 5월 30일 저녁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진행된 북콘서트 '수요북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무대에 올랐다. '2012 독서의 해' 특집으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용린 독서의해추진위원장, 조경란 작가가 초대돼 '독서의 해'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수요북콘'은 저자와 독자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에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펼쳐지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여산통신, 온북TV와 월간 〈라이브러리&리브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5월 마지막 주 수요북콘은 '2012 독서의 해' 특집으로 진행됐다.

'독서의 해'로 4행시 짓기 영상 상영과 함께 개성파 뮤지션 이아립의 오프닝 공연으로 수요북콘의 무대가 시작됐다. 이날 사회는 시인이자 월간 〈라이브러리&리브로〉의 신혜정 편집장이 맡았다.

사회자가 첫번째 질문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연의 〈삼국유사〉를 꼽았다.

포미닛 권소현 "책 속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최광식 장관은 "〈삼국유사〉는 단군신화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담은 책으로 많은 설화와 전설이 들어 있어 재미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백성들의 삶과 우리나라 전통문화까지 엿볼 수 있어 1백번도 더 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삼국유사〉 외에 〈도덕경〉 등 주로 고전을 많이 읽는다"고 덧붙였다. 문용린 독서의해추진위원장 역시 "〈데미안〉 〈노인과 바다〉 등 헤르만 헤세의 고전들을 즐겨 읽는다"고 답했다. 아이돌그룹 포미닛의 멤버 권소현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독서를 즐긴다는 권소현씨는 "한동안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자신감〉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면서 "책 속에 해답이 있다"고 말해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에 최 장관은 "책을 많이 읽으면 교양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지덕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권씨가 "학교 공부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자 문용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독서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읽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읽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혼자만 많이 읽지 말고 읽은 책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 위원장 "하반기에 독서동아리 축제 열립니다"

최 장관은 "국민들이 5퍼센트만 책을 더 읽어도 출판산업이 4천2백억원 가량 살아난다"면서 "비단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식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호주, 일본 등 독서 선진국들을 예로 들며 "올해는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독서권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9일 문화역서울 284에서 '2012 독서의 해' 선포식을 하는 한편 '책 드림 날 행사'(4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책 다모아 행사'(4월 21일), '책책폭폭 행사'(5월 24일) 등 다양한 독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다.

이날 문 위원장은 "독서의해추진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전국에 있는 독서동아리들이 독서경연대회를 벌이는 독서동아리 축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2부는 '북 콘서트'인 만큼 저자와의 대화로 진행됐다. 최광식 장관, 조경란 작가, 문용린 위원장은 각자 자신이 집필한 책을 들고 나와 책의 집필 동기와 집필 시 에피소드 등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최광식 장관은 지난 1월 펴낸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은 역사학자인 남창 손진태 선생의 유고집으로 기존에 출간된 3권의 유고집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최 장관은 남창 손진태 선생을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소개하면서 유족들에게 원고를 건네받아 책을 펴내게 된 사연을 전했다.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삼국유사〉 번역본을 출간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이자 교육석학인 문용린 위원장은 2006년도에 펴낸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를 소개하면서 "한국 부모들이 주관을 가지고 자식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문집 〈백화점〉을 펴낸 조경란 작가는 '백화점은 미술관처럼 될 것'이라는 앤디 워홀의 말을 인용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백화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 "독서 문화 정착하는 게 올 목표"

이날 수요북콘에서는 한류의 가능성과 문학한류에 대한 생각도 나눴다. 최 장관은 "드라마 한류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에서 문학한류, 애니메이션 한류를 넘어 'K컬처 한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책)"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위원장 역시 "최근 e-book 시장 때문에 출판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종이책과 e-book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스토리의 오리지널이자 모든 예술장르의 기본"이라며 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독서의 해'가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조경란 작가의 바람에 대해 최 장관은 "독서장려 캠페인을 통해 독서인구가 늘어나고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게 올해 독서의 해의 목표"라고 답했다.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수요북콘-독서의 해 특집'이 끝난 후에는 조경란 작가의 사인회가 이어졌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장은주 기자

경인고 학생회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임지원양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모금운동을 벌였다. 모금운동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들과 임양의 딱한 사정을 학생회에 전달한 김의선 선생님(오른쪽 두번째).

"따뜻한 세상임을 느끼게 해줘 고마워요"

심장수술한 친구 위해 성금 모은 서울 경인고 학생들 조건 없는 선행

지난 4월 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자리 잡은 경인고에서는 대대적인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3학년 임지원양을 돕기 위해 학생회가 팔을 걷어붙인 것.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내놓은 1천~2천원부터 학부모들의 후원까지 더해져 모금액은 1천만원을 넘겼다. 경인고 학생들의 선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대비돼 더욱 눈길을 끈다.

임지원양의 사연을 처음 학생회에 알린 사람은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이의선 교사였다. 경인고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통합수업을 한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영어나 수학처럼 수준 높은 학습 능력이 필요한 과목의 시간에는 특수학급으로 자리를 옮겨 별도 수업을 받는다. '22번 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안고 태어나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지원양도 특수학급 학생 중 한 명이다.

'22번 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은 23쌍의 상염색체 중 22번째 염색체의 끝부분이 떨어져나가는 질환을 말한다. 개인별로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약 80퍼센트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2백여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질환 중의 희귀 질환이다.

몸이 약하지만 학교 생활을 즐거워했던 지원양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수업 태도도 좋은 모범학생이었다. 수술 날짜를 겨울방학기간인 1월로 잡은 것도 학교생활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힘든 수술인지 모르고 개학 하면 충분히 학교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기적적으로 회생했지만 수술비 엄청나

하지만 막상 가슴을 열고 보니 예상외로 상태가 심각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생사를 오갔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더 이상 어렵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지원양은 깨어났다. 의료진은 지금도 지원양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 사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3월 말 병문안을 간 이의선 교사는 "수술하고 치료받는 비용이 벌써 2억원을 넘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지원양의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받는 적은 수입으로 세 식구가 근근이 생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교사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마침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생회가 조직되자 학생회장 김수진(2학년)양에게 지원양의 딱한 사정을 알렸다.

김수진양은 학생회 간부들을 소집해 모금 운동을 기획했다. 가상계좌를 만들고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 스토리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금 내용을 알렸다.

점심시간이면 식당 앞에서 모금함을 들고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학부모들도 모금에 참여했다. 학교 행정실에 들러 직접 봉투를 전달하고 간 분도 있었다. 1학년 학생회 간부인 이윤세군은 설날 모아둔 세뱃돈을 내놓았고, 김동휘군은 통장을 헐었다고 한다.

학생회 주도로 SNS 등으로 모금 운동

한창 모금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내용을 접한 한 일간지 기자가 기사화하면서 이들의 선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병상에서 힘겹게 투병하는 지원양의 모습이 전파를 타자 모금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학생회 간부이자 학생회장단의 일원으로 병원을 방문한 권택준군(1학년)은 "얼굴도 모르는 선배였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모금 운동을 했다"고 한다.

학생회장 김수진양은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주어 어려움은 없었다"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데 큰 도움이 못된 것 같아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수진양의 이야기에 이의선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중간고사가 코앞에 닥친데다 돈을 걷는 문제라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시험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금액수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모은다는 데 의미를 두라고 당부했어요. '우리가 선배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학생회 간부들이 정말 열심히 나서주었고, 재학생들이 관심을 보여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죠."

심장수술 전 임지원양이 학교 행사에 아빠와 함께 참석했다. 임양은 심장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지원양은 감염의 우려 때문에 1인실에서 회복 중이다. 장기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탓에 욕창이 심해져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재활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지원양의 의지가 워낙 강해 가족들은 희망을 안고 있다. 지원양의 어머니 안하영씨는 "학생들의 모금 소식과 학생회장단의 방문이 지원이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요즘 학교폭력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학생들 모금과 병문안으로 큰 힘 얻어"

지원이는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녀다. 지금까지 안씨에게 쓴 편지가 2백 통이 넘는다. 그런데 편지에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들어 죄송해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안씨는 그 점이 늘 가슴 아프다고 했다.

"사람들은 다들 제가 씩씩해서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씩씩해야 해요. 엄마니까. 제가 힘들어 하면 지원이는 몇 배로 더 처질 테니까요. 고비는 넘겼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안씨는 "지금은 그저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쾌유를 빌어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해준 학생들에게, 이의선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 · 최선희 객원기자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의 송현채 상담사가 수화 상담을 하고 있다. 송현채 상담사는 우수 상담사로 뽑혀 지난달 콜센터 개소 5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110콜센터는 6월 14일부터 공공기관을 위한 민원 수화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110 띠링띠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5년… 매년 2백만건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가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간 9백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 110콜센터는 국민이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 발짝 더 친근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불이 나서 집안 살림살이가 다 타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독거노인 A씨는 집에 불이 나 살 곳이 없어 막막해졌다. 집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임시로 이웃집에 살면서 시청에서 집을 고쳐주길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앞으로 어디서 살지 고민하던 A씨가 전화를 건 곳은 바로 '110'.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콜센터 상담원은 관할 시청 담당자에게 A씨의 사정을 전달했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A씨는 가재도구와 집 수리비 등을 지원받아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

110콜센터가 개소한 지 지난 10일로 꼭 5년이 됐다. 그동안 A씨처럼 딱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 문의를 하기 위해 110콜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9백만 통이 넘는다.

법무부 등 일부 부처 콜센터 업무도 대행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민원이 있는 국민에게 행정조직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일반행정 민원상담 ▲사회복지·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을 비롯해 ▲주민세·수도요금 등 세금·공공요금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생계침해신고 상담까지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110콜센터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2백17만3천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년 대비 23퍼센트가 증가했다. 비중이 높은 내용은 전입신고나 공무원채용 등 행정·교육·문화와 관련한 상담이다. 지난해 기준 78만 건이다.

110콜센터는 일반상담 외에 정부 부처의 콜센터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및 국가보훈처, 식약청, 통계청 등 여러 공공기관의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훈처 상담 담당 부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표한 서비스품질지수 중앙정부 콜센터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콜센터에는 이들 기관의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사그룹 외에 110일반그룹, 온라인상담그룹, 수화채팅상담그룹 등의 부서가 있다.

청각장애인에겐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전문 상담 부서를 제외한 부서 중 눈에 띄는 부서는 바로 수화채팅상담그룹이다. 청각장애인 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다. 6명의 상담원이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상담을 돕고 있다. 웹캠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상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6월 14일부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공공행정기관 110 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화를 이용한 '민원상담 보조 서비스'다. 청각장애인이 전국의 공공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화를 모르는 공무원도 청각장애인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110콜센터가 중간에서 일종의 '통역'을 한다.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청각장애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은 컴퓨터에 연결된 웹캠을 켜고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된다. 110콜센터가 연결되면 수화상담원은 청각장애인의 민원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말로 전해 주고, 다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수화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전화 통화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일반·수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110콜센터'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일부 기종에 따라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

110콜센터는 외국 정부기관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2009년 이후에만 11개국 16개 기관에서 콜센터를 다녀갔다. 대만과 베트남 정부 부처 관계자는 각각 세 차례나 다녀갔다. 이들은 110콜센터의 운영 노하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상담원'이다. 오래 근무한 상담원이 더 나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윤승욱 센터장은 "무엇보다 상담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승욱 110콜센터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민원 전화 주세요"

110콜센터의 주요 역할을 설명한다면.

110콜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부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콜센터에는 지난 5년간 상당한 분량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가 축적돼 있습니다. 이 DB를 활용하면서 1백34명의 상담사가 일반상담의 90퍼센트가량을 해결하고 있어요. 콜센터 자체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면 해당 부처의 담당 부서로 중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등 공식 대행 기관 말고도 3백17개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단 110으로 걸기만 하면 민원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는 다산콜센터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10콜센터와 다산콜센터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산콜센터(1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중 서울시의 콜센터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생활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110콜센터는 정부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10콜센터의 목표나 과제가 있다면.

장기적인 과제는 정부의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각 부처의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호만 누르면 여기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찾아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을 보면 번호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우 '911'은 긴급 상황, '311'은 비긴급 상황,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쉽진 않지만 국민이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백34명의 상담사들 '최고의 만족도' 이끌어

전화로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 상담원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외로우니 말상대 좀 해 달라'는 전화는 애교 수준이고, 상담사를 자신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상담사를 비하하며 반말을 하는 민원인, 전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끊을 때까지 성적인 욕설을 늘어놓는 민원인 등이 상담원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민원인이다. 110콜센터에는 5월 현재 1백34명의 상담원이 있다. 대다수가 여성이다.

글·하주희 기자

경기도 파주여행

임진강 황포돛배에 몸을 맡기고 비무장지대 숨겨진 절경을 보다

때 이른 더위 속 색다른 파주 여행을 계획했다.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과거를 품고 흐르는 임진강에 들러 물결 따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고 비무장지대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 명랑한 기운 가득한 심학산 둘레길을 걸으며 숲의 기운을 선물받았다.

남한 쪽 민간인통제선의 경계가 파주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임진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받아 든 지도에서 임진강의 구불구불한 강줄기를 따라 붉은 선으로 표시된 통제선을 보니 낯설기 그지없다. 민간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임진강을 자유롭게 부유할 수 있다기에 찾아간 곳이 국사봉 아래 두지나루터다.

이곳에서 황포돛배를 타면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수십 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임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단다. 네모진 나무배의 지붕에 올린 황포 돛이 바람에 펄럭인다. 이 배는 조선시대 원형을 복원해 만들었다. 조선시대의 황포돛배는 지금의 상암동에 있던 한강 마포나루에서, 서해에서 생산한 소금이며 생선, 젓갈 등의 물건을 싣고 이곳 두지나루터를 지나 임진강 상류로 가는 마지막 포구였던 고랑포구까지 약 50여킬로미터의 강줄기를 따라 운행했다.

쉬지 않고 가면 15시간 걸린다는 길이 보통 보름까지 걸리는 것은 21개의 포구를 들러 물건을 싣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데다 임진강이 서해의 조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랑포구 앞의 여울목은 평소 수심이 40센티미터에 이를 만큼 얕아 썰물이 되면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다(실제 여울목은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이용됐던 루트이기도 하다).

두지나루터서 출발, 원당리 적벽을 보다

기분 좋은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두지나루터를 출발한 배는 거북바위를 지나 임진강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높이 10미터의 자장리 적벽을 지난다. 60만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수직 무늬의 절벽 아래쪽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생긴 선명한 가로줄무늬로 인해

심학산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약천사. 심학산 둘레길을 찾는 많은 등산객이 출발점으로 삼는 곳이다.

그 신비로움이 배가된다.

봄이면 흰 꽃을 피우는 돌단풍나무가 적벽에 달라붙었고, 겸재 정선은 적벽의 풍경에 취해 그 유명한 '임진적벽도'를 남겼다. 임진강에는 이런 적벽이 11개가 있는데 북한 쪽에 7~8개가, 남한 쪽에 서너 개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자장리 적벽 맞은편에는 호미로 파고 정으로 쪼은 듯 섬세한 무늬가 돋보이는 원당리 적벽이 서 있다.

배는 적벽을 지나 고랑포 여울목 앞으로 다가간다. 이곳이 남방한계선이다. 개성 송악산이 눈앞이다. 마포나루를 떠난 황포돛배의 종착지인 고랑포구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인구 2만5천여 명이 살던 번성한 상업도시였다. 종로 화신백화점과 동양백화점의 분점이 있었고 지금의 대학병원 규모에 해당하는 우리병원도 이곳에 있었단다.

전쟁 후 분단이 되면서 도시는 사라졌고 오래전 영화는 흑백사진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돛배는 이러저런 사연과 시간을 싣고

민간인이 유일하게 임진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방법은 두지나루터에서 황포돛배를 타는 것 뿐이다.

뱃머리를 돌려 왔던 길을 되짚어 나아간다. 다시 바람이 불었고 잠시 뒤 배는 두지나루터에 도착했다.

임진강을 건너는 두포교 앞에서 총 든 군인에게 "해마루촌 40호에 간다"고 신고를 하고는 민통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자동차가 지나는 길 이외의 곳들은 대부분 지뢰를 경고하는 푯말과 함께 가시 달린 선으로 막혀 있다. 분단의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

진동면 동파리의 해마루촌은 민통선 내 대성동과 통일촌과 이웃하는 3개 마을 중 하나다. 대성동과 통일촌은 1970년대 만들어졌고 해마루촌은 2001년 조성됐다.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이후 52년 만에 다시 조성된 이 마을에 돌아온 사람은 모두 60여 가구 1백50여 명.

마을이 조성될 당시 본인 소유의 땅이 있어야 하며 집을 지을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내 건 탓에 다시 돌아온 주민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사람들이다. 때문에 마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민통선 내의 긴장감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 부유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인다.

잘 손질된 정원을 가진 60여 채의 주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한껏 묻어 나는 디자인이다. 이 마을을 하늘에서 보면 높은음자리표처럼 보인다. 몇 해 전 일본의 NHK방송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촬영하던 중 이 마을이 높은음자리표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 길의 이름도 '높은음자리표길'이다.

마을 방문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여행을 떠나 본다. 마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제3땅굴과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가 있다. 1978년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5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땅굴은 길이 1천6백35미터, 폭과 높이 각 2미터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땅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로 실제 한국인 여행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 땅굴을 둘러본다.

숲의 청량함이 느껴지는 심학산 둘레길(왼쪽 사진). 심학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임진강이 펼쳐진다(오른쪽 위). 파주는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요리가 유명하다.

민통선 안 해마루촌 방문 후 DMZ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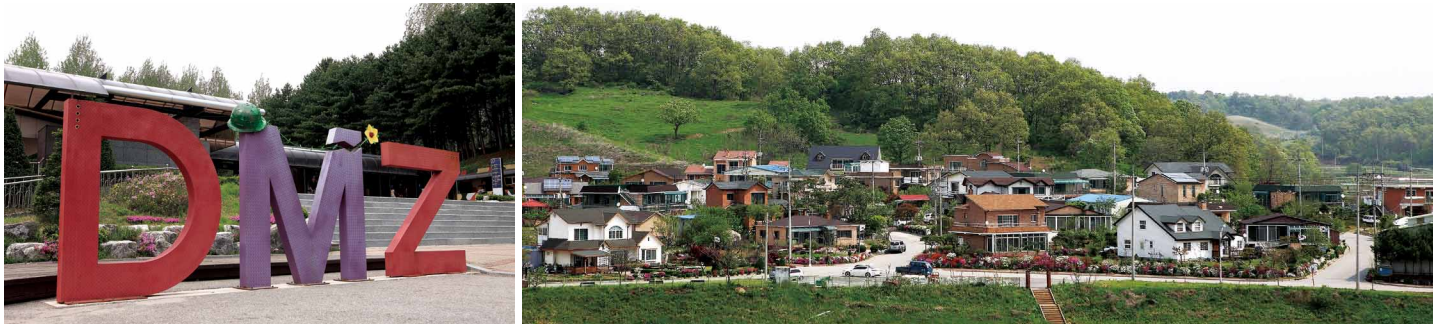
도라산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7백여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의 '국제역'이다.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더 킹 투하츠〉에서 주인공들이 남북을 오가는 통로로 자주 등장한 터라 친숙하다. '국제역'은 대한민국에서 육로를 통해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역이라는 의미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기 직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한 그날 이후 도라산역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언제라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출국장 등 모든 시설이 준비돼 있다. 머지않아 도라산역을 통해 북한 땅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멀리 터키에 이르기까지 육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도라산전망대에 오르면 인공기 아래 논에서 한창 모심기 중인 북한의 농부가 보인다. 망원경으로는 개성 시가지 일부와 개성공단, 김일성 동상까지 볼 수 있다. 개성까지 불과 50리라는데, 마음의 거리는 아직은 더 먼 것 같다.

파주 여행은 청량한 초여름의 숲길을 걸으며 산뜻하게 마무리한다. 파주출판단지 뒤에 버티고 선 해발 194미터의 나지막한 심학산에도 둘레길이 있다. 산이 낮다 하여 그냥 동네 뒷산쯤 되려니 생각하면 오산이다.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펼쳐진 아름다운 오솔길은 그 어느 유명한 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심학산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이다. 산 정상은 북서쪽에 치우쳐 있다. 심학산 둘레길은 산의 7부능선을 연결해 만들었다. 둘레길은 동쪽으로 교하배수지와 산마루가든, 약천사, 수투바위, 배밭 정자, 정상전망대 등이 있고 산의 주릉 등산로와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하며 수많은 샛길과도 연결된다.

둘레길의 총 길이는 6.8킬로미터, 길 자체에는 경사가 거의 없는 완만한 숲길이 이어진다. 천천히 쉬엄쉬엄 걷다가 바람 부는 정자에 걸터앉아 쉬었다 간다 해도 세 시간이면 족하다.

1978년 발견된 최대규모의 제3땅굴 입구. 걸어서 또는 열차를 이용해 땅굴 안을 돌아볼 수 있고 내부는 촬영이 금지돼 있다(왼쪽 사진). 민통선 내 해마루촌의 전경. 부유한 별장지 같은 풍경이다.

심학산 둘레길은 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서패리 꽃마을의 제1주차장과 약천사 앞 제2주차장, 타조농장 아래쪽의 제3주차장이다. 많은 사람이 약천사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서쪽 배밭에서 시작해도 괜찮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배꽃과 그 아래 연둣빛 물이 오른 배나무밭을 지나 나무 냄새 폴폴 나는 숲을 지나면 정자가 하나 나온다.

파주출판단지 뒤 심학산 둘레길은 또다른 맛

길은 세 갈래로 뻗어 간다. 왼쪽은 둘레길 수투바위 방향, 오른쪽 역시 둘레길 배수지 방면이며 직진하면 정상으로 향한다. 일단 정상으로 올라 본다. 둘레길과 달리 꽤 가파른 길이 시작되고 금세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그래도 기분은 괜찮다. 명랑한 새소리가 숲을 가득 채운다. 노랑지빠귀가 머리털을 세우고 땅으로 내려와 잽싸게 벌레를 물고 가고 산비둘기가 호드득 날아오른다. 정상의 정자에 오르면 시야가 툭 트인다. 194미터의 높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자유로와 나란히 뻗은 한강줄기가 오두산 아래서 임진강과 합쳐지는 광경이며 그 너머 북한의 개풍군 지역이 훤히 내다보인다. 강에서 불어온 바람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이마에 흐른 땀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바람에는 달착지근한 꽃 냄새도 섞여 있다.

정상에서 6백미터 정도 내려오면 왼쪽에 운동기구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대한 약사여래대불을 모신 약천사가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면 수투바위고 왼쪽 길로 접어들면 산마루가든을 지나 교하배수지를 지나게 된다. 어떤 길로 가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황포돛배 두지나루터는 당동IC에서 문산 방면 37번 국도를 이용해 장파리와 자장리를 차례로 지나 두지리에서 장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보인다. 해마루촌은 두지리를 지나 37번 국도를 이용해 적성, 연천군 방면으로 가다가 법원 방면 8번국도로 갈아탄 뒤 민간인통제선 입구인 전진교를 건너면 된다. 해마루촌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곳이다. 마을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하고 전진교 국군 초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들어갈 수 있다. 심학산은 파주출판단지 뒤에 있다. **심학산 둘레길 정보** tour.paju.go.kr **임진강 황포돛배** ☎031-958-2557~8, **해마루촌** ☎031-952-9127, 011-795-9127(마을이장)

먹을 곳 여름을 앞두고 파주를 찾아 '보신 여행'을 즐겨 본다. 맑고 깨끗한 임진강이 길러 낸 장어구이는 최고의 스테미너 음식. 요즘에야 대부분 양식장어이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파주의 장어집들은 개성 있는 양념과 굽는 방식을 통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민통선 내 장단면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장단콩을 재료로 한 다양한 콩 음식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통일동산 두부마을**(☎031-945-2114), **DMZ 장단콩 두부마을**(☎031-945-3370) 등이 유명하다. 비학산 자락 초리골에 가면 북한 평안도 사람들이 즐겨 먹던 초계탕을 맛볼 수 있다. 초계탕은 오이 초절임과 겨자채 무침에 잘 삶아 짝짝 찢은 닭고기를 얹고 차갑게 식힌 국물을 부어 마시는 별미. 더위를 단번에 잊을 수 있다. 4대째 이북식 냉면 가게를 해 온 **초리골 초계탕**(☎031-958-5250)에서 맛볼 수 있다.

잠잘 곳 아이와 함께라면 법원읍 금곡리 **쇠꼴농장**(☎031-959-0123)에서 하룻밤 묵으며 다양한 체험을 해 보면 좋겠다. 허브화분심기, 미꾸라지잡기, 뗏목타기, 동물먹이주기 등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기와집, 구들방, 숯방, 쇠꼴방 등의 독특한 객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 4인 기준 6만원부터. 파주출판단지에는 책을 콘셉트로 한 독특한 호텔 **'지지향'**(☎031-955-0090)이 있다. 객실에는 TV 대신 책이 꽂힌 서재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묵으며 출판단지의 북아울렛에서 지식 쇼핑을 즐겨 보면 좋겠다. 이 밖에 적성면의 **파주 감악산 펜션**(☎010-8409-5420), 연정 **황토펜션**(☎031-959-5722) 등 친환경 자재로 지은 펜션도 괜찮다.

옛날 설렁탕은 어떤 맛이었을까

우리의 국민음식이라 할 수 있는 설렁탕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첫번째는 선농제(先農祭) 관련설이다. 선농제는 조선시대에 농사의 신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임금이 풍년을 기원하며 지낸 제사를 말하는데, 그때 제단에 바쳤던 소로 현장에서 국을 끓여 먹은 것이 그 기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속설을 민속학자 김화진씨는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설명했다.

"조선왕조 때 매년 2월 상신일이면 왕이 지금의 제기동에 있던 선농단으로 거동한다. 생쌀과 생기장과 소, 돼지를 죽이기만 하여 통째로 놓고 제전에 올린 뒤에 상전에서 친경을 한다. 이 행사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 둔 큰 가마솥에다 쌀과 기장으로 밥을 짓고 소는 갈라서 국을 끓이고, 돼지는 삶아서 썰어 놓고 친경 때 소를 몰던 노농(老農)과 구경꾼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을 불러서 먹였다.

이때 뚝배기를 빌려다가 밥을 담고 국도 퍼 놓는데 반찬이 되는 김치가 없어서 파를 씻어다 놓았고 간장도 없으므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게 하였다. 설렁탕은 선농단에서 끓인 국 같다고 하여 선농탕이 와전되어 설렁탕이 되었다".

이 주장에는 반론도 많다. 조선시대에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소를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 우금령(牛禁令)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임금이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를 잡게 했겠느냐는 항변이다.

핏물 제거 후 푹 고아낸 진하고 고소한 그 맛

<세종실록>에는 소의 밀도살을 단속하는 관청인 금살도감(禁殺都監)의 설치에 관한 기록과, 고기 먹은 자에게 가해지는 태형 50대는 가벼우니 더욱 엄단해 달라는 형조의 요청이 올라 있을 정도이니 그도 그럴 법하다.

두번째 견해는 몽골어 영향설이다. 몽골말로 고깃국을 '슐루'라 하는데 고려시대에 이것이 전래되어 '슐루탕'이 되었다가 설렁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 외에도 국을 오랫동안 '설렁설렁' 끓인 데서 비롯된 명칭이라는 의견도 있고, 국물이 눈처럼 뽀얗다는 의미의 설농탕(雪濃湯)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 진위를 가리기는 힘들다.

통상 설렁탕을, 옛 문헌에 등장하는 '고음(膏飮)'이나 그 후의 곰국, 곰탕 등과 뿌리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1940년에 출간된 손정규(孫貞圭)의 〈조선요리〉는 설렁탕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설렁탕의 특징을 "우육(牛肉)의 잡육(雜肉), 내장(內臟) 등 소의 모든 부분의 잔부(殘部)를 뼈가 붙어 있는 그대로 하루쯤 곤다"라고 했다.

뼈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곰국과의 차이점으로 꼽은 것인데 사실 그 구분이 그리 뚜렷한 것은 아니다. 그 전후에 곰국에도 뼈를 넣고 끓인다는 기록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해박했던 작고한 언론인 조풍연씨에 의하면 옛날 설렁탕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우피와 오물만 제하고 큰 가마솥에 넣어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끓였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끓인 진국은 "오늘날의 뜨물국 같은 설렁탕의 맛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투박스럽고 거칠지만 소라는 짐승의 맛을 이보다 더 한꺼번에 느끼는 방법은 달리 없다"고 극찬한 바 있다.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을지로4가의 '문화옥'은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설렁탕을 끓여 내는 집이다. 좋은 양지와 사골 등을 반나절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한 뒤 장시간 푹 고아 낸 국물은 잡내가 없으며 진하고 구수하다. 설렁탕에 빼놓을 수 없는 김치도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것이 입에 착 감긴다. G

조선DB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권력 오래 쥔 게 죄냐?

일러스트 · 유재일

특채로 함께 벼슬길 나선 은진 송씨인 두 사람
당쟁에 밀렸다 재등용, 서인의 정국주도 기여
먼저 죽은 송준길은 역사적 평가에서 잠잠
살아서 권력 더 쥔 송시열엔 평가도 가혹

역사 속 인물들이 훗날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동일한 행적을 보인 인물에 대해 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할 때 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다. 그런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의외로 행적보다는 사람됨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송시열**(宋時烈·1607~1689)과 **송준길**(宋浚吉·1606~1672)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전형적이다. 나이는 송준길이 한 살 위였지만 두 사람 다 은진 송씨로 이이와 김장생의 학문을 계승한 서인이라는 점이 우선 똑같다. 게다가 둘 다 문과 응시를 거부하고 초야에서 학문수련만 하다가 효종이 즉위한 직후 특채로 벼슬길에 나섰다.

이때 조정은 공서파와 청서파로 당파가 나뉘어 있었다. 같은 서인들이지만 인조반정에 기여한 공서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반정과는 거리를 뒀던 청서파는 공서파의 전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송준길과 송시열은 모두 청서파였고 결국 공서파의 영수인 김자점에 맞서다가 두 사람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효종 9년 두 사람은 다시 중용되어 송시열은 이조판서, 송준길은 병조판서를 맡아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또 효종 사후 예송논쟁이 터지자 남인의 3년상 주장을 막아 내고 서인의 1년상을 관철시켜 현종 초 서인의 권력장악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다만 송준길은 현종 13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더 이상 당쟁에 휩쓸릴 일이 없었다. 반면 송시열은 현종 말 2차 예송논쟁에 연루되어 겨우 죽음을 면했고 숙종이 즉위해 전권을 휘두르자 이에 맞서 서인의 당론을 지키려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결국 좌의정에까지 올랐지만 숙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단순히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송시열이 송준길보다 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일까? 그보다는 더 오래 사는 동안 송시열은 권력투쟁에 깊이 관여하여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닐까?

송시열은 남인에 대해 과격한 처벌을 주장했고 이어 같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릴 때도 노론을 대변하여 소론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노론으로부터는 송자라는 칭송까지 들었지만 남인이나 소론으로부터는 '시열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됐다. 아마도 송준길의 경우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송시열만큼 강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성 자체가 비교적 온순 온건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조선 초 세조의 쿠데타를 적극 도운 권람과 한명회의 상반된 평가에서도 두드러진다. 사실 수양대군에게 거사를 재촉한 장본인은 한명회가 아니라 권람이다. 한명회를 안평대군 쪽에 서지 않고 수양대군 쪽에 서게 만든 사람도 권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권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난하지 않는 반면 한명회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권람은 일찍 권력에서 손을 뗀 반면 한명회는 천수를 누릴 때까지 권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하지도 말라고 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타서 죽을 수 있고 너무 멀면 춥기 때문이라 했던가? 이런 가르침은 21세기 첨단시대라는 요즘에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대학 농활, 농어촌 재능기부로 부활한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에 12개 동아리 선정… 4백만원 이내 지원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봉사 동아리를 통해 연탄 나르기나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봉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의욕이 많이 생깁니다."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이숙 조교의 말이다.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사랑원정대'는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 대상 동아리로 최근 선정됐다.

대학 농활(農活)이 농어촌 재능기부로 부활한다.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직능·사회봉사 단체, 대학, 기업 등 민간의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18개 대학교 동아리가 신청했으며 전문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전대학교 '사랑원정대'를 포함, 12개 동아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국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한다. 차량비, 재료비 등 재능기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아리당 4백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스마일재능뱅크'에 신청한 농어촌 마을 대상

이번 공모사업은 농어촌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재능기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재능기부를 요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 마을이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재능을 요청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가진 대학생 동아리가 공모사업에 지원토록 한 것이다.

'스마일재능뱅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 마을을 연계하는 인터넷 기반의 지원 시스템이다. 재능기부자 및 재능수요자 등록 관련 정보, 개인 및 기업·단체 등의 재능기부 활동 사례 소개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랑원정대' 안준근 회장(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은

조선DB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 활력 증진을 위해 12개 대학생 봉사 동아리를 선정,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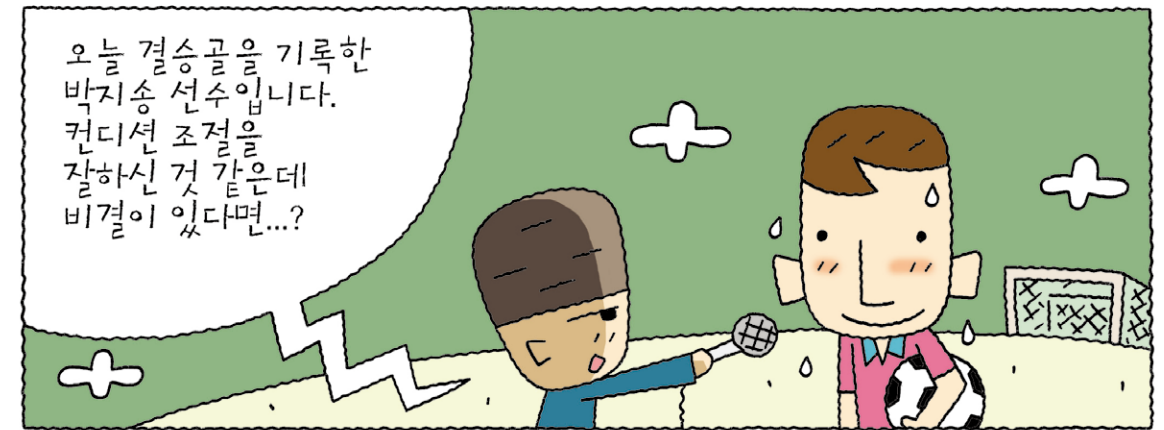
"올해는 재능기부 대상 마을로 선정된 전라북도 김제 봉남면 용신리에서 웰 다잉 강연 및 주거환경개선,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이 홍보가 부족해 많은 대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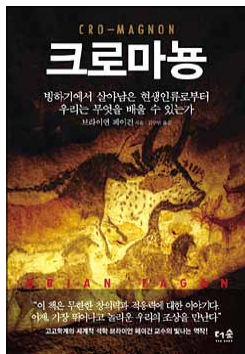
글 · 박은지 인턴기자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02-500-1791
스마일재능뱅크 www.smilebank.kr

약간 부족해야 하는 까닭

글과 그림 · 최영순

인생도 축구처럼 어시스트와 패스가 중요하다. 주고 받는 것이지 혼자만 잘하는 거 아니다. 아니, 주는 게 먼저다. -김흥국(방송인)

〈크로마뇽〉

경험한 듯 생생한 선사시대

브라이언 M. 페이건 지음
김수민 옮김
더숲 · 1만8천9백원

"4만년 전 빙하시대. 늦가을 아침 안개가 깔린 강가에서 털옷을 걸친 크로마뇽인 가족이 천천히 움직인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강 건너편의 어둠을 들어올렸다. 순간 소년이 소리를 지르며 엄마 곁으로 달려간다. 우락부락하고 털이 무성한 얼굴이 강 건너편 덤불숲에서 조용히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한 네안데르탈인이다. 아버지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창을 흔든 뒤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아버지는 말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우린 그저 그들을 무시하면 된다."

세계적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페이건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신간 〈크로마뇽〉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한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약 2만년 동안 함께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실조차 낯선 독자들을 위해 가상의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말처럼 크로마뇽인은 약 5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1만5천년 전쯤 빙하시대가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최초의 현생인류'이다.

이 책은 크로마뇽인의 생존투쟁 역사를 생생히 그려 낸다. 고고학·인류학적 연구성과를 총동원했지만 딱딱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대가의 솜씨답다.

크로마뇽인, '바늘' 덕에 최초 현생인류로 남아

저자에 따르면 약 20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네안데르탈인과 5만년 전에 등장해 약 2만년간 네안데르탈인과 지구상에 공존했던 크로마뇽인은 정말 모든 게 달랐다. 외모도 달랐고, 사용하는 도구의 정밀성도 달랐고, 사냥하는 방법도 달랐다.

대표적인 예가 크로마뇽인에겐 귀가 뚫린 바늘이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에겐 없었다. 이 사소한 차이는 털가죽 여러 겹을 덧댄 옷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갈렸고, 크로마뇽인이 빙하기를 견뎌 내며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뿐 아니라 크로마뇽인은 투창기를 사용해 네안데르탈인보다 먼 거리에서 대형 동물을 사냥할 수도 있었다. 동굴 벽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말과 소의 그림을 그릴 정도의 예술적 능력도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없었다.

이상이 고고학적 발굴·연구성과를 퍼즐조각처럼 맞춘 뼈대라면, 저자는 여기에 인류학적 연구성과로 살을 붙인다. 독자들을 아직 얼음이 덮인 선사시대로 이끄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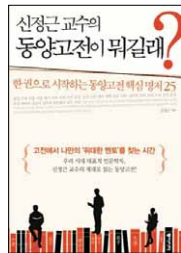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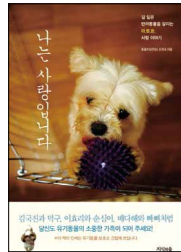
박기태 지음 | 달봄 · 1만3천8백원

개인과 국가, 그리고 지구촌의 이력서를 만나볼 수 있다. 평범한 청년에서 귀빈이 된 한 청년의 이력서를 통해 사회에서 원하는 스펙이 아닌 본인만의 진짜 스펙을 찾으라고 전한다. 한 나라의 이력서를 통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외국의 세계사 교과서와 매체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소개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정해 나가는 활동들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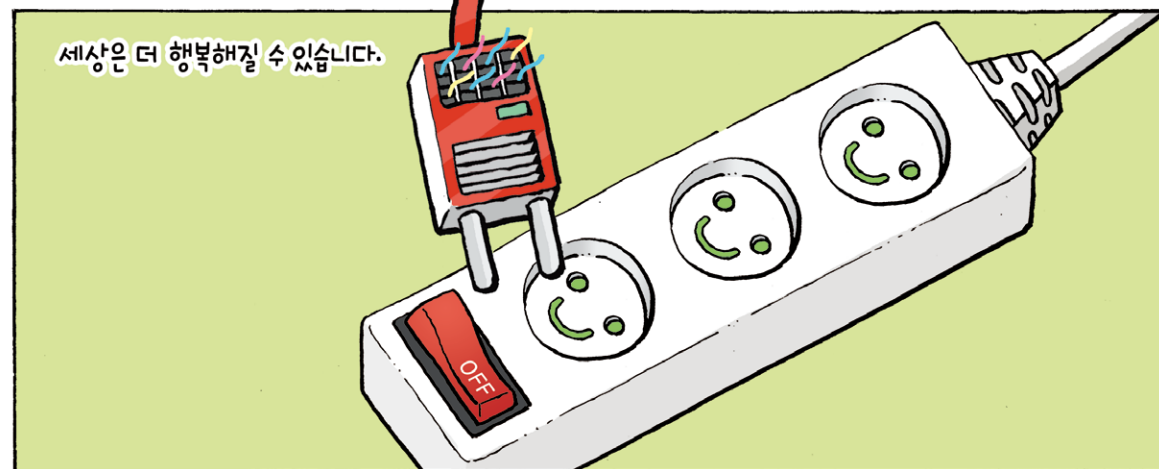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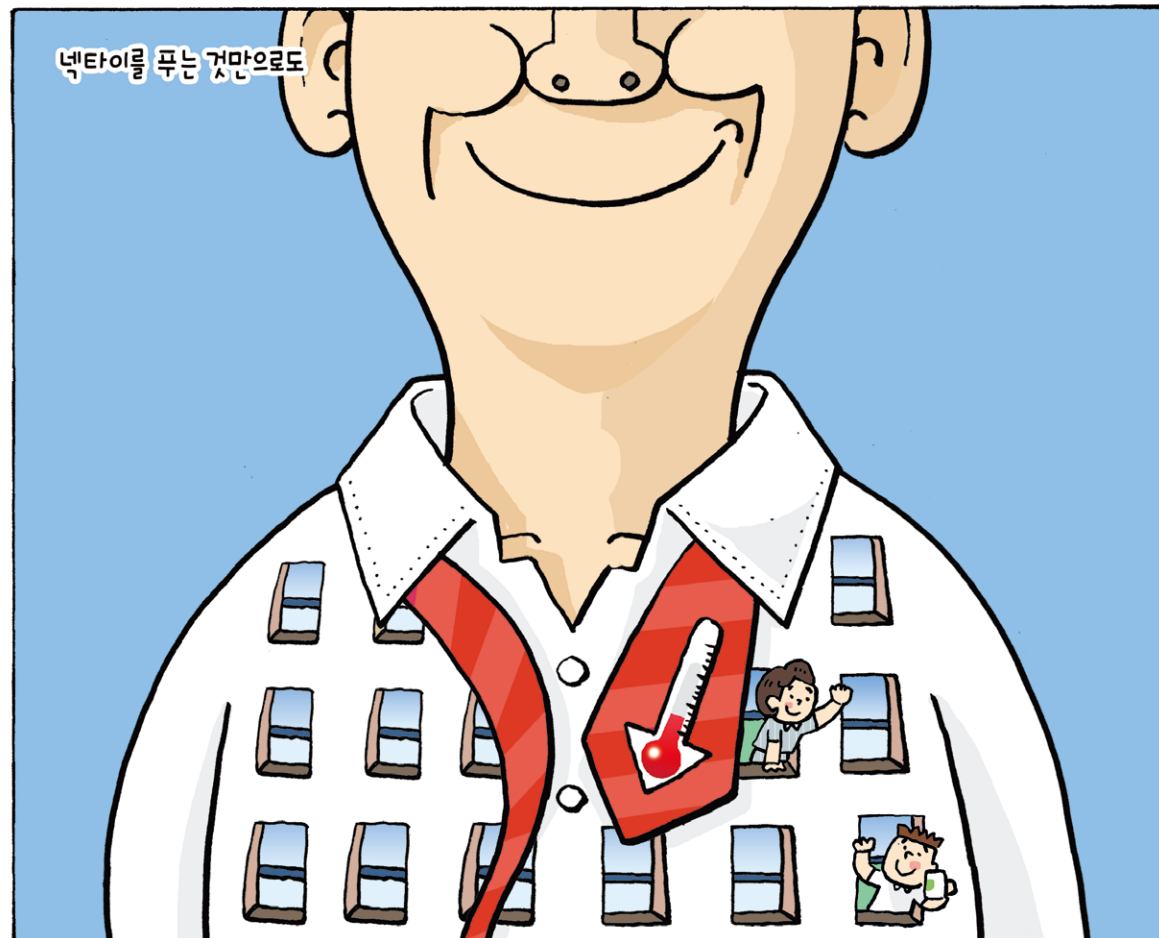
신정근 교수의 동양고전이 뭐길래

신정근 지음 | 동아시아 · 1만6천5백원

인문학자인 저자가 25권의 동양 고전을 새롭게 해석했다.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 각각의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핵심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풀어 냈다. 우리가 동양인이며 의식의 심층에 동양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21세기 몰락하는 서구 이념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록으로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독법'을 실어 다양한 독법으로 읽기를 권한다.

나는 사랑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손현숙 지음 | 지식의숲 · 1만2천원

유기동물이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전한다. 분리불안이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부부, 열 살 노령견을 가족으로 맞이한 가족 등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보듬는 사람들의 사례를 담았다.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깨는 동시에 동물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쿨 맵 시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노타이만으로도 체감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갑니다.

한-아세안센터

2012 아세안 축제는 각국의 전통공연 등 문화체험행사와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종합문화행사다.

아세안 전통춤 · 문화체험 서울 · 여수서 즐겨 보세요

〈2012 아세안 축제〉

'2012 아세안 축제(ASEAN Culture and Tourism Fair 2012)'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파크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아세안 국가들의 전통공연이 펼쳐지며 각국의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다양한 관광정보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종합문화행사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 70여 명의 공연단이 참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싱가포르의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재해석한 퓨전예술 공연, 말레이시아 민속악기 연주, 베트남 전통무용 공연 등 아세안 10개국의 대표 공연단이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공연장 내에서는 각국의 관광홍보 부스가 설치돼 동남아시아 10개국 주요 관광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아세안 키친도 운영해 일반인들이 아세안 커피와 동남아 음식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아세안 의상 체험, 국기 페이스페인팅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본공연에 앞서 6월 6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아세안 10개국 공연단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G

정리 · 박은지 인턴기자

일시 6월 9~10일 **장소**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문의** ☎02-2287-1115~6

축제 제7회 광릉숲 문화축제

제7회 광릉숲 문화축제가 6월 9일부터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 광릉숲 일원에서 열린다. '숲속 음악회'에서는 기타 연주와 아카펠라 공연을 볼 수 있다. 퓨전국악과 아프리카 민속공연도 펼쳐진다. 광릉숲 걷기행사도 있어 문화행사와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운영되며 광릉숲 및 왕숙천 생태사진 전시도 열린다.

일시 6월 9~10일 **장소** 경기 남양주시 봉선사 **문의** ☎031-590-8317

공연 강수진&슈투트가르트발레단 까멜리아 레이디

강수진&슈투트가르트발레단 '까멜리아 레이디'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까멜리아 레이디'는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동백꽃(까멜리아)을 사랑해 숭배자들로부터 많은 동백꽃을 받은 코르티잔(부유층의 공개 애인)과 순수한 귀족 청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6월 15~17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77-5266

6월 첫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20일~5월 26일

	곡명	가수
1	하루 끝	아이유
2	2HOT	G.NA
3	Good Boy	백지영
4	너에게 배운다	리쌍
5	I Don Care	용감한 녀석들
6	겸손은 힘들어	리쌍
7	목소리	백지영
8	Twinkle	태티서
9	아름다운 밤	울랄라세션
10	나쁜놈	마이티 마우스